

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687.21 (+107.73)		813.50 (+23.29)
	금리 (연·%)		환율 (원·달러)
	3.884 (-0.004)		1351.75 (+1.35)

檢 수사에 해외서 여론전… 노조 리스크 확산

삼성전자, 노사관계 점입가경
DX노조, 美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인력 효율화 반대’ 메시지 광고
경찰,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최승호 위원장 등 檢 불구속 송치

삼성전자의 노조 문제가 사내 교섭단체를 넘어 수사기관과 해외까지 번지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다바이스경험(DX) 부문 노조가 뉴욕에서 해외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위원장까지 검찰에 송치되며 노조 리스크가 대외 리스크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인력 효율화에 반대하는 광고를 내걸었다. 15초 분량의 영상에는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인공지능 전환(AI)에 따른 인력 운용이다. 동행노조는 회사가 AX를 추진하면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효율을 측정해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있다며 ‘인력 효율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감원 계획을 발표한 사실은 없다.

동행노조의 반발은 지난 5월 임금협약



열흘 만에 생존자 구조

구조대원들이 5일(현지 시간) 네팔에서 구조된 중국인을 이송하고 있다. 구조대는 네팔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력 발전소에서 중국인 한 명을 구조했다고 주네팔 중국 대사관이 밝혔다. /신화·뉴시스

타결 이후에도 지속됐다.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다며 반도체를 담당하는 다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의 보상 격차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1일에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경영진과의 소통을 촉구했다.

집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으로 확대된다. 동행노조는 오는 18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동행노조가 대외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초기업노조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 4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지난 3월 총파업 추진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임직원 10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6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M-커버스토리

실적 상관없이 퇴출… 코스닥 ‘성장 사다리’ 절실

코스닥 기업 ‘옥석’ 가려야

관리종목 상장사 총 46곳 집계
“삼진·하닉처럼 장투종목 없어
투자자들 금세 자금 거둬들여
퇴출 앞서 지원체계 마련해야”

“요즘 코스닥 투자자들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A 씨(55)는 “코스닥은 도대체 ‘장투’ (장기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며 이같이 털어놨다. 코스피는 9월 들어 ‘7천피’ (지수 7000)를 다시 바라보고 있지만 코스닥은 ‘천스닥’ (코스닥 1000)도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다. 25년 전 찍은 최고점(2834.40)은 더더욱 같지 않다. 퇴출 공포와 엔비디아·테슬라·스페이스X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없어서다. <관련기사 3면>

시장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코스닥 시장을 혁신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6일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46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들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이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하회하는 ‘동전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10월에 첫 상장폐지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 투자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인 B씨는 최근 코스닥 종목에 투자했던 주식을 손절해 3000만

원에 눈물을 머금고 전량 매도했다. 그는 “주식 명절을 앞두고 돈이 필요한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대거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어 일단 모두 팔아버렸다”며 “코스닥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믿고 장기투자할 종목이 없다고 본 투자자들이 금세 자금을 거둬들인다”고 말했다. 실제 4월 기준 잠재적 상장폐지 우려 기업이 172곳이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퇴출 가능성이 있는 곳이 177개(8월 25일 기준)로 유가증권시장의 약 3배에 달했다. 시가총액은 4조6153억원, 소액주주는 216만6832명(보유주식 평가액은 6조4001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퇴출에 앞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2일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기업 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무 상태나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시장의 변동성으로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되는 억울한 기업들도 있다”고 짚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세그먼트 제도 시행과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앞서 진입·성장·퇴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코스닥 성장사다리 전환 프로그램’을 먼저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강화 조처를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혁신당 “檢정원 지키려 공소청 직제안·검사정원법 꿈수…실망 넘어 경악”
▲나경원 “인사 참사 속대발인데…대통령은佛출국길?” /사진 뉴시스

▲홍준표, 김승원에 “부인 앞에서 청문회 받아야…한동훈, 녹취는 어디서”
▲국힘 진중모,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동훈, ‘신약 로비’ 의혹 녹취록 추가 공개…김승원 “식약처장 직접 챙겨보라고 할게”
▲輿論동아 “한동훈, 김승원 수사기록 불법으로 받아…공수처에 고발”

‘항노화·수명 연장’ 새 지평 열린다 K-제약·바이오, R&D 성과 줄이어

GLP-1 약물 연구개발 본격화
한미약품 대사질환 치료제 확대
JW중외제약 제형혁신 역량 집중
HK이노엔 차별화 기전 승부수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이 항노화 및 수명 연장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체중 감량, 혈당 조절에 국한되지 않고 생체 나이를 늦추는 핵심 요법으로 개발되면서다. 단기 다이어트에서 건강 수명 연장으로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제약사들도 R&D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GLP-1 약물의 노화 지연 효과를 입증한 동물 실험 논

문이 공개됐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연구진이 인간의 60세에 해당하는 노령 쥐에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당뇨 치료제 ‘오젠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했다. 그 결과, 노령 쥐 평균 수명이 대조군 대비 12% 늘었다. 당 대사 능력, 근육 기능 등도 개선됐고 체내 노화를 촉진하는 염증성 세포 반응도 크게 완화됐다. 연구진은 GLP-1 활성화가 장수 요법으로 알려진 칼로리 제한의 핵심 메커니즘을 모방하는 동시에 이를 능가하는 유익한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이미 비만 치료제를 활용해 인간의 생물학적 노화를 지연시키는 단계에 진입한 인체 임상도 있다. 미국 텍사스대 겔버스턴 의과대학 연구진은 55~70세 성인을 대

상으로 임상 2상에 착수했다. 미국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젠티온드’와 ‘마운자로’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가 생체 나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26년 2월 시작해 2028년 1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 역시 GLP-1 약물이 노화 관련 질환을 관리하는 영역에서 차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독자 개발한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통합 대사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첫 국산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출시한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이며 한국인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향후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발매됨에 따라 처방 데이터를 확보해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적응증을 지속



한미약품 연구원들이 신약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그룹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당뇨병 임상 3상에 돌입했다. 해당 임상은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리플로진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병용 투여해 위약 대비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 평가한다. 임상 종료 시점은 오는 2028년이다.

후발주자인 JW중외제약은 제형 혁신에 중점을 둔다. 약물 투여 횟수는 줄이고 주기는 늘림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 영역으로 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팔글루타이드’의 비만 및 2형 당뇨병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연이어 신청했다. 보팔글루타이드는 GLP-1 수용체 작용제다. 2주에 한번 투여하는 피하주사 제형을 갖춰 평생 또는 장기간 혈당과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 환자의 투약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HK이노엔은 기존 치료제 대비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차별화 기전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HK이노엔의 ‘에크노글루타이드’는 세계 최초 cAMP 편향 GLP-1 수용체 작용제다. 신호 전달 선택성을 높여 위장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에크노글루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를 직접 비교한 임상 2상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했다. 에크노글루타이드의 20주차 평균 체중 감소율이 세마글루타이드 대비 35% 높았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항노화 시장 규모는 차세대 영역인 만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다양한 질환이 맞물리면서 거대 영역으로 커지고 있어 부작용을 줄이는 우수한 내약성 등 보다 고도화된 연구개발 경험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미래AX공학관, 연구 혁신의 시작이 되다

미래 AX 공학관에서 펼쳐질 초격차 연구 혁신
중앙대학교는 인류의 내일을 바꿀 ‘메타 밸류(Meta-Value)’를 창출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첨단 교육 플랫폼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

- 2026학년도 상반기 정부재정지원사업 1,927억 수주
- BK21사업 18개, 선도연구센터(ERC, SRC) 5개, ICT연구센터 4개, 중점연구소 2개 유치

■ 첨단기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 증원 승인 학과
[일반대학원 - AI학과/융합보안학과 등 10개 학과, 첨단영상대학원 - 메타버스융합학과]
- 창의ICT공과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

■ AX(미래)전환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 생태계

- 반도체 클린룸과 GPU 서버실을 갖춘 ‘미래 AX 공학관’ 건립
- 사람·학문·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집단 융합 연구 공유 플랫폼’ 구축



미래 AX 공학관 착공(2026)



중앙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6.9.8. (화) ~ 9.11. (금) 18:00까지
https://admission.cau.ac.kr | 02)820-6393



K-기업, 인재 확보 ‘구슬땀’ AI·로봇 등 미래사업 박차

삼성·SK·현대차 등 하반기 채용
사업전략 변화에 맞춘 인재 선점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인재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채용은 인공지능(AI)과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 성장사업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연구개발(R&D) 인재 확보로 단순 인력 확보가 아닌 사업 전략 변화에 맞춘 필요한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오는 14일까지 R&D와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6개 부문에서 92개 채용 공고를 냈다.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AI, 로봇틱스 등 미래사업을 주도할 인재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기아 역시 이달 중 하반기 신입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인력 채용과 함께 해외에서 피지컬 AI 인재 확보에도 집중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17~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HMG 테크 토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호세 무노스 현대차 사장, 박민우 첨단차플랫폼본부(AVP)장 사장, 만프레드 하러 연구개발(R&D)본부장 사장 등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분야 최고 책임자들이 총출동해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알릴 방침이다.

LG전자는 오는 13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지원서를 받는다. HS·MS·VS·ES 등 4개 사업본부와 한국영업본부 등 주요 조직이 참여한다. 로봇틱스와 모빌리티, 스

마트팩토리, 냉난방공조(HVAC) 등 회사가 성장사업으로 육성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인력을 확보한다. 이외 함께 해외 R&D 인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주관했다. 류 CEO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달부터 북미 주요 대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채용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까지 R&D 분야 외국인 경력 사원을 모집을 진행했으며 전체 12개 모집 분야 가운데 9개가 로봇 관련 직무다. 반도체(DS) 부문은 패키지 개발과 회로 설계, 펌·인프라 자동화 분야 인력을 모집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6일 하반기 신입사원 지원서 접수를 마치고 선발 절차에 들어갔다. 설계와 소자, R&D 공정, 패키지 개발, 양산기술 등 AI 반도체 경쟁력을 뒷받침할 23개 직무가 대상이다.

포스코그룹도 오는 16일까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포스코, 포스코인더나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DX,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6개 그룹사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생산·설비기술부터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경영지원까지 약 60개 직무가 대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AI 시대 핵심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전자 등 산업 전반에서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점하려는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m@



metro

상폐 우려 커지자 대출·회사채도 부담… 中企 자금난 가중

기업 체급별 금융은도차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등 코스닥 기업들이 상장폐지 우려에 자금조달 부담까지 겹치면서 ‘돈맥경화’에 내몰리고 있다. 코스닥에서 퇴출 가능성이 커진 기업은 주가와 기업가치 하락에 이어 신용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금조달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특히 자금조달 선택지가 제한적인 중소기업은 상장폐지 리스크가 자금난으로 직결되면서 정상적인 영업과 투자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상폐 우려 기업, 은행에서도 ‘고위험’ 되나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 여파가 자본시장을 넘어 은행권의 간접금융(대출)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은 여전히 은행 대출이다. 대기업처럼 회사채를 수시로 발행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일수록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8%포인트(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 중소기업대출은 0.82%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0.92%까지 올라 6월 기준 2016년(0.9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의 상황 여력이 약해진 가운데 은행 입장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시중은행 취약기업 리스크 점검 나서
중소법인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기업대출 늘며 차주 선별관리 부각
정책금융 中企대출 비중 83% 넘어

앞서 은행권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421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폭인 5조4000억원을 웃돌았다. 중소기업 대출은 3조9000억원 증가해 대기업 대출 증가분(3조8000억원)보다 약 1000억원 많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의존도도 여전히 높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70조1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1% 순증했다. 전체 원화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83.4%로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원화대출 100원 가운데 83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공급된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진 기업은 은행의 여신 관리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들은 상폐 우려가 높은 기업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가 곧 기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 투자와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현금흐름과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기업들이 가장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코스닥 기업을 둘러싼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 대출과 회사채 등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우려하는 지점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상장폐지 우려로 유상증자 등의 자금조달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차환까지 어려워질 경우 정상적인 영업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AAA급 늘고 하위등급 발행은 급감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경계 고조
中企 대출금리 상승폭 대기업 두배
시중 유지기준 상향 6개월 유예

◆ 금리 양극화… 중소기업 자금줄 빨간불

회사채 시장에서도 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의 온도차는 커지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은 물론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에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25조90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조8320억원에서 31.5%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기업 대출은 총 25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의 증가액인 20조4000억원을 상회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도 24조원 늘었다.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은행 대출로 자금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7월 무보증 일반회사채 가운데 ‘AAA’급 발행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1% 증가했다. 반면 AA등급 발행액은 24조100억원에서 15조300억원으로 37.4% 감소했으며, A등급은 10조4440억원에서 5조6617억원으로 45.8%, BBB등급은 1조3560억원에서 5750억원으로 57.6% 급감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늘어난 반면 등급이 낮아질수록 발행 위축 폭이 커진 것이다.

신용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A-등급 3년물 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4월 기준 0.687%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0.4~0.5%포인트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는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출금리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올해 1월과 비교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기업 대출금리는 0.08%포인트

상승한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7%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승폭이 대기업보다 두 배 이상 컸다. 다만 7월 들어서는 흐름이 다소 달라졌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17%에서 4.18%로 0.01%p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38%에서 4.22%로 0.

16%p 하락했다. 기업 여신 확대를 위한 우대금리 지원과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 등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끌어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기준 코스닥 시장의 최근 12개월(TTM) 순이익은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고, 주가수익비율(PER)은 2020년 12월 이래 최저 수준”이라면서도 “적자 기업과 성장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 금리 상승은 부담 요인”이라고 짚었다. 코스닥 시장의 유의미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고채 3년물 금리의 하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상폐 문턱 조정했지만 과제는 여전… “기업 실질가치 봐야”

정부가 지난 4일 상장폐지 제도의 보완책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내년 1월 예정됐던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 300억원 상향을 6개월 유예하고,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정리매매 없이 코

넥스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영업이익을 냈거나, 1개 연도 흑자와 함께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을 갖춘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퇴출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됐다고 해서 자금조달 문제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상장폐지 우려가 불거진 기업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면 은행의 여신 심사와 투자자의 자금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결국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체계기업과 일시적인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기준을 밑돈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기업 처럼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업에 동일한 시가총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NEXT INTELLIGENCE

기술의 눈을 통한 사람의 시선으로

고려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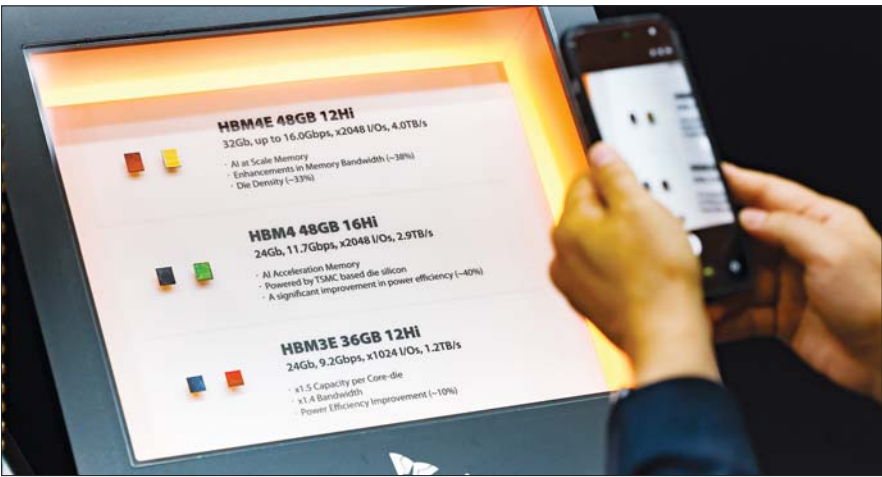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2026.09.07.(월) 10:00 - 09.09.(수) 17:00
세종캠퍼스: 2026.09.07.(월) 10:00 - 09.11.(금) 18:00
접수처: oku.korea.ac.kr

마이크론 증설·中 추격까지… HBM 승부처는 ‘수율·고객 인증’

SK하이닉스, 매출 점유율 50% 1위
삼성전자 33%, 마이크론 18% 기록
美 마이크론, HBM 생산 2배 확대
中 창신메모리, HBM3E 생산 시작
삼성전자, HBM4 비중 35%로 확대
SK하이닉스, HBM4E 샘플 공급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로 고대 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늘면서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이 HBM 생산능력을 빠르게 늘리는 가운데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도 HBM 시장에 발을 디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HBM4 공급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차세대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매출



지난 8월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SK 하이닉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기준 50%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33%, 마이크론은 18%를 기록했다. 마이크론은 HBM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월 4만~5만장 수준이던 HBM 생산능력을 올해 말 월 10만장 수준까지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의 HBM 생산능력은 각각 월 15만~20만장 수준으로 추정된다. 차세대 제품 비중도 높이고 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공급하기 위한 12단 HBM4 양산에 나섰다. 연말에는 HBM4 12단 생산 비중을 최대 50%까지 높일 것으로 전해

졌다. 중국 업체도 HBM 시장 진입에 나섰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CXMT는 최근 5세대 제품인 HBM3E를 소량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바바 반도체 계열사 T-헤드와 중국 AI 반도체 업체 캄브리콘은 해당 제품을 차세대 AI 칩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중국산 AI 가속기에 CXMT의 HBM3E가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CXMT는 HBM3E의 생산량과 수율, 성능 등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4 양산에 나선 만큼 제품 수준에서는 한 단계 차이가 난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4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SK하이닉스와의 HBM시장 점유율 차이를 전분기보다 12%포인트 줄인 17%까지 낮췄다. 삼성전자는 HBM4양산과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LS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전체 HBM 출하량에서 HBM4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약 5%에서 2분기 약 3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HBM 믹스 수율도 전분기 대비 5%포인트 이상 개선된 것으로 추정됐다. SK하이닉스는 HBM4 공급 확대와 함께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HBM4E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 HBM4E는 핀당 최대 16Gbps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구현하고 HBM4 대비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 개선했다. 패키징 기술을 통한 열 관리 성능도 높였다.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적용해 HBM4 대비 열 저항을 약 17% 낮췄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와 협업을 통해 HBM4E 양산을 준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 시장에 미국과 중국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쟁 구도도 이전보다 넓어지고 있다”며 “다만 생산능력이나 제품 개발만으로 경쟁력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양산 수준과 수율, 고객사 인증과 공급 여부 등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무안군 공고 제2026-1087호 일로읍 망월~청호간 301호선 확포장공사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재공고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일로읍 망월~청호간 301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예정) : 2026. 11. ~ 2028.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일로읍 망월~청호간 301호선 확포장공사	전남광주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청호리 일원	22,510.3㎡	무안군수 무안군 무안로 530

2. 토지의 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토지 : 불입의 토지목록 참조
다. 출입기간 : 2024. 9. ~ 사업종료시까지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 9. 07. ~ 2026. 9. 22.(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무안군 건설과 도로시설팀 (☎061-450-5672)
다.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방법
- **보상내역의 세부목록은 무안군 건설과 도로시설팀, 일로읍사무소에 비치**하며, 기간 중 세부목록을 열람 후 이의가 있으신 분은 **위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 일체 [불입 참조]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불입 참조 또는 개별통지문 발송

5. 보상시기 및 절차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 공고후 관계 법률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약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체 1인예를 추천할 수 있음. (단, 동의는 1개 업체만 가능)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①협의(계약체결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②협의불성립 → 수용재결신청(광주전남특별시)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무안군) → 수용재결 심의(광주전남특별시) → 보상금공탁 → 소유권이전

7. 의견서 제출
가.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나. 의견제출처 : 무안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8.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은 편입토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나. 편입토지 및 물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주지 불명등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송달을 갈음합니다.
다.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라.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무안군 건설과 도로시설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통지합니다.

엑스에너지·테라파워 등과 협력 롤스로이스 기자재 파트너 선정 8068억 투입해 창원에 공장 건설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이 2030년대부터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주요 개발사의 공급망에 진입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미국 정부가 초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기존 소재·기자재 계약이 후속 발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와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 미국 주요 SMR 개발사와 협력하며 공급 기반을 넓히고 있다. 경수로형 SMR의 소재 제작에 참여한 데 이어 고온가스로용 단조품과 소듐냉각고속로용 핵심 기자재 계약을 확보하며 비경수로형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후속 발주 규모는 글로벌 SMR 시장의 확대 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SNE 리서치는 글로벌 SMR 누적 배치용량이 2030년 약 1GWe에서 2050년 최대 155GWe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초기 시장에서는 기존 원전 기술과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는 경수로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온가스로와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로형이 상용화되면서 시장을 구성하는 기술도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정책 지원도 SMR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첨단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ARDP)’을 추진하며 민간 기업의 차세대 원자로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규

제위원회(NRC)도 첨단 원자로 인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심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3년 뉴스케일과 위와 SMR 소재 제작 계약을 맺고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온가스로 방식의 엑스에너지와 Xe-100 16대에 적용될 단조품 예약계약을 맺었다. 소듐냉각고속로 분야에서는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추진하는 ‘나트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달 원자로 보호용기와 지지구조물, 내부 구조물 제작 사업을 수주하며 공급 범위를 핵심 기자재로 넓혔다. 나트륨 프로젝트는 올해 NRC로부터 미국에서 40여년 만에 비경수로형 상업용 원자로 건설 허가를 받았다. 유럽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롤스로이스 SMR의 핵심 기자재 파트너로 선정돼 영국과 체코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제작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개발사와 협력하며 각 프로젝트의 상용화 일정에 맞춰 공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발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 8068억원을 투입해 창원 본사에 SMR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오는 2031년까지 연간 20기 규모의 SMR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요 SMR 개발사들과 선제적으로 협력하며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가 구체화되면서 내년부터 수주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



이 광고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묵묵히 변함없이”

많은 부사들이 있지만
더 매력적인 표현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부사는 이것

빛나지 않아서
빛나는 부사

시련이 닥쳐도
변화의 태풍이 불어도
좋은 날이 와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루 하루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변함없이

누군가 우리의 필살기를 묻는다면
우리가 답하게 될 그 부사

“묵묵히 변함없이”

SK hynix

초심

메가특구·부동산·레버리지 ETF… 여야, 대정부질문 격돌

오늘 민주, 내일 국힘 교섭단체 연설
9일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 진행

민주당, 용산공원 정비 법안 속도
국민의힘, 용산공원 녹지보존 중점

여야가 정기국회 초반인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각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부동산 공급 법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호르무즈 파병 등 쟁점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6개 부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추석 전에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주 7~8일 각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9일부터 14일까지(주말 제외)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소화한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정기국회 쟁점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중점 사업과 쟁점 입법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당정이 지난 4일 당정협의회에서 3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 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번달 내 발의하고 연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김민석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별법의 신속 처리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남권 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면제 등 노동 규제 완화 적용 여부도 관심이 높는데,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를 조화하기 위한 여러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화협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뒷받침할 공급 법안도 여야 간 입장차가 커서 본회의에 처리가 연속으로 불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 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용산공원 부지 중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정기국회에서 노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끄는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 용산공원특별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 내 녹지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둔 만큼,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용적률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푸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만으로 증시 불안정성을 조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덮을 수 없다며 국정

조사를 버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해서 도입됐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했는지 그런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서 누구 때문에 됐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위 차원의 현안질이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결될 것이라고 국정조사 실시엔 선을 그었다.

또한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란 고위 당국자가 정부가 이란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견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암호를 놓은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파병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영화·K콘텐츠의 미래 논의

3박5일 일정… ‘뤼미에르 서밋’ 참석
엘리제궁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섰다. 영화·영상산업 국제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어떤 논의를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은 3박5일 일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한다. 뫼비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 콘텐츠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문 당시 이 대통령에게 서밋의 공동의장을 제안하며 프랑스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달라고 초청 의사를 밝혔다.

뤼미에르 서밋 참석 이후 이 대통령은 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 오찬을 함께한 후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방안과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양국 기업 20여개가 참여하는 한-프랑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9일에는 브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섰다. 사진은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오찬을 마친 뒤 악수하는 모습. /청와대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 마팅스 코먼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을 진행한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 기대성과에 대해 “안보와 경제·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을 통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의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의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이란전 기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우리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의힘, 김승원·용혜인 ‘쌍끌이 낙마’ 총공세

김,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에
용, 의원직·배우자 논란 문제삼아
李 대통령에 ‘후보 지명철회’ 요구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쌍끌이 낙마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인사 검증 실패로 연결해 대역 공세의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이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김승원, 용혜인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겨냥해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오빠’라 불리며 ‘식약처에서 승인되면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고 화답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며 “그런 인물을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하나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단순한 공익 민원 전달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한다. 자신이 사퇴해 당이 원외로 밀려나면, 꼼수로 받던 연 11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용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문제도 쫓았다.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2021년과 2022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최근 5년간 기본소득당에 1억 90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낸 뒤 약 3633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두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삼성 노조문제 확대, 노무관리에도 부담

» 1면 ‘檢 수사에 해외서 여론…’서 계속

이에 삼성전자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해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회사는 임금협약 타결 과정에서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한 만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쟁의 관련 명

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협상 타결 이후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동행노조도 대응에 나섰다. 초기업노조에 명단 작성 경위와 활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사측에는 동행노조 조합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노조 문제가 검찰 수사와 해외

여론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삼성전자의 노무관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DX노조가 문제 삼은 인력 운용은 삼성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AX와 맞물리면서 노사 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AX를 핵심 경영 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6월에는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연구개발(R&D)부터 생산·마케팅·지원까지 업무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 DNA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함께 만들어갈 모든 이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모두의 일상이 더 자유로워지도록
각자의 가능성이
더 넓게 펼쳐지도록

하나가 모두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모두의 도전과 성장 응원

-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패럴림픽 국가대표 및 종목·선수 후원)
- 시각장애인 K리그 AI중계서비스 도입(2026 에디슨 어워즈 수상)

장애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예술가 미술 공모전 개최

재활부터 자립까지 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 재활·학습 보조 기구 지원 및 취업 교육
- 노후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차량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AIG·라이나 ‘선방’, 악사 ‘손실’… 보험손익이 실적 갈랐다

자산 1조 외국계 손보사 3곳
상반기 실적 최대 780억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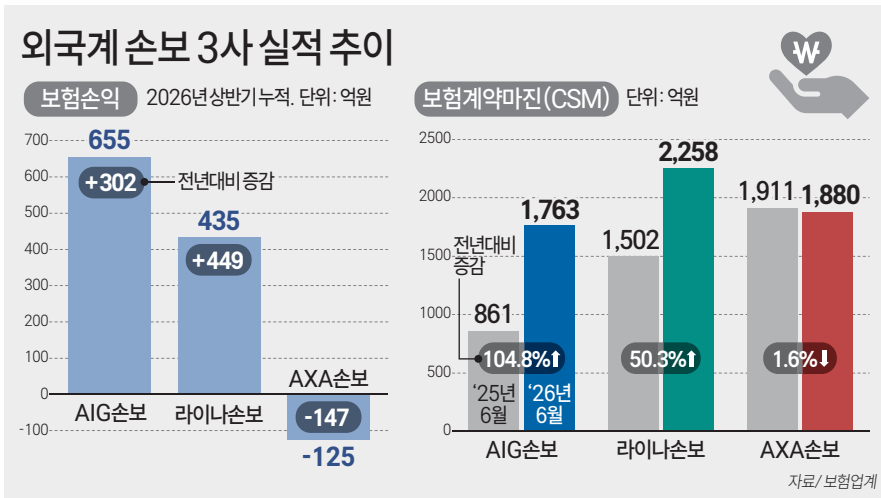
라이나 순익 331억, 보험손익 435억
AIG 순익 595억, 215억 늘어나
악사 보험손익 125억 적자 전환

자산 1조원 안팎의 비슷한 체급에도 AIG손해보험은 595억원, 라이나손해보험은 331억원의 순이익을 낸 반면 악사손해보험은 5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세 회사 모두 투자손익은 감소했지만 AIG손보의 계리가정 변경, 라이나손보의 재보험 적자 축소, 악사손보의 기타사업비 급증이 보험손익을 갈라 최대 780억원의 격차를 만들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총자산은 라이나손보가 1조776억원, AIG손보가 1조672억원, 악사손보가 8494억원으로 집계됐다. AIG손보와 악사손보는 국내 법인이고 라이나손보는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이다.

◆ 투자손익 모두 줄었는데…보험손익은 780억 격차

AIG손보의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380억원에서 595억원으로 215억원 늘었다. 라이나손보는 33억원에서 331억원으로 298억원 증가했다. 반면 악



사손보는 87억원 흑자에서 5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투자손익 감소는 공통적이었다. AIG손보의 투자손익은 132억원에서 117억원, 라이나손보는 62억원에서 43억원, 악사손보는 95억원에서 56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실적을 가른 것은 보험손익이었다. AIG손보의 보험손익은 353억원에서 655억원으로 302억원 증가했고 라이나손보는 14억원 적자에서 435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악사손보는 22억원 흑자에서 12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AIG손보와 악사손보의 보험손익 격차만 780억원이다.

AIG손보는 보험수익에서 보험서비스

비용을 뺀 금액이 737억원에서 1060억원으로 323억원 늘었다. 반면 재보험손익은 216억원 적자에서 264억원 적자로 악화됐다. 기타사업비용은 168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감소했다.

AIG손보는 공시에서 장기보험 신계약 물량 증가와 갱신계약 요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유리한 가정변경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312억원이 환입됐다.

라이나손보는 재보험 부문에서 반등의 동력을 얻었다. 보험수익에서 보험서비스 비용을 뺀 금액은 572억원에서 692억원으로 120억원 늘었다. 여기에 재보험손익 적자가 516억원에서 184억원으로 332억원 줄

었다. 재보험 적자 축소는 전체 보험손익 개선액 449억원의 약 74%에 해당한다.

악사손보는 보험수익에서 보험서비스 비용을 뺀 금액이 95억원에서 96억원으로 소폭 늘었고 재보험손익 적자도 69억원에서 58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기타사업비용이 3억원에서 163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보험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악사손보는 공시에서 기타사업비와 투자비용 증가를 순이익 감소 원인으로 밝혔다.

◆ CSM 늘어도 유지율 하락…상반기 이익 지속성은 별개

장래 보험이익의 재원인 보험계약마진(CSM)은 AIG손보가 861억원에서 1763억원으로 104.8%, 라이나손보는 1502원에서 2258억원으로 50.3% 증가했다. 악사손보는 1911억원에서 1880억원으로 1.6% 감소했다.

CSM 증가분이 모두 신계약 성과인 것도 아니다. AIG손보는 신계약으로 CSM이 1074억원 늘었지만 경험조정에서 435억원 감소했다. 라이나손보 역시 신계약 효과가 558억원, 가정 등 미래서비스 변경 효과가 932억원이었지만 당기 예상차로 363억원이 줄었다.

계약 유지율 하락은 세 회사의 공통 과제다. 13회차 유지율은 AIG손보가 59.97%로 1.40%포인트(p), 라이나손보

가 63.21%로 4.37%p, 악사손보가 71.01%로 0.94%p 하락했다. 49회차 유지율도 각각 2.85%p, 4.30%p, 5.39%p 낮아졌다. 유지율은 전년 동기와 서로 다른 계약군을 대상으로 산출돼 CSM 변화와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만, 신규 판매 이후 계약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6월 말 경과조치 전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라이나손보 275.91%, AIG손보 243.54%, 악사손보 158.97% 순이었다. AIG손보와 라이나손보는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악사손보의 경과조치 후 비율은 185.68%였다.

상반기 성적표만 보면 AIG손보와 라이나손보가 악사손보를 크게 앞섰다. AIG손보는 가정변경에 따른 환입, 라이나손보는 재보험 적자 축소의 영향이 컸다.

하반기에는 이 같은 효과를 제외하고도 보험이익을 반복할 수 있는지, 악사손보는 급증한 기타사업비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가 세 회사의 실제 수익력을 가를 전망이다.

악사손보는 “올해 4월 시행한 특별퇴직 프로그램으로 인해 전년 대비 일회성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뿐 그외 기타 사업비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카드론 잔액 39.5조… 60대 이상 증가폭 최대

8개 카드사, 7월 말 카드론 잔액
60대 이상 증가액 10.9조 6.9% 증가
20대·30대 각각 4.8%·4.6% 감소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올해 카드론 이용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젊은 층의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의 지난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39조5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9조1024억원) 대비 4183억원 증가했다.

연령 미상을 제외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카드론 증가 폭이 가장 가팔랐다. 60세 이상의 카드론 잔액은 같은 기간 10조1985억원에서 10조8990억원으로 6.9% 증

가했다. 50대 대출 잔액도 2.1% 늘어나며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젊은 층의 카드론 잔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20대와 30대의 카드론 잔액은 각각 4.8%, 4.6% 감소했다. 20대는 1조1496억원에서 1조948억원으로, 30대는 4조551억원에서 3조8699억원으로 축소됐다. 40대 역시 10조2019억원에서 9조8743억원으로 3.2% 줄었다.

이에 자연스레 중장년층 카드론 비중도 커지고 있다. 7월 전체 카드론 잔액 중 5060세대의 비중은 약 62%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0.6%)과 비교해 1.9%p(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카드론 잔액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 이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연체율 악화는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30대가 2.42%에서 2.96%로 0.54%p 올라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악화됐다. 이어 40대가 0.46%p, 20대가 0.41%

p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은 0.35%p, 50대는 0.24%p씩 오르며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초 경기 침체에 더해 빚투 수요가 은퇴 세대까지 확장되면서 중장년층의 급전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은 자산 가격 하락, 누적된 고금리 이자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하고 상환 한계에 맞닥뜨렸다는 분석이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는 서민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빚투와 가계대출 관리에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에게 카드론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추가로 배분한다. 기존 가계대출 목표치를 준수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약 0.5%p 안팎의 추가 한도가 부여될 전망이다.

/안재선 기자 wotjs187@

롯데건설,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수주

올해 도시정비 누적수주 4조 돌파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4조원을 돌파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전일 열린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6층~지상 26층, 4개동, 공사비 4002억원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6건, 누적 수주액 총 4조110억원을 달성했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한 ‘도곡 르엘’을 단지명으로 제인했다. 특히 글로벌 건축 설계사인 저디(JERDE)와 협업해 세계적 수준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지 곳곳에는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롯데



서울 강남구 ‘도곡 르엘’(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투시도. /롯데건설

데일드타워와 대모산, 강남 도심의 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해 일상 속에서 여유와 특별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 내 조경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특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짜리교개공원에서 단지까지 연결되는 약 3k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입주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잔디광장과 정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즉시 정지

금융위, 명의도용 차단 11일 시행

앞으로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신고 접수 이후 금융거래 정지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사망자 명의로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그러나 최장 1개월의 사망신고 기한과 월 1회 실시되는 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 간의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사망 사실 확인까지 최장 2개월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한 사망신고 정보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부정거래 차단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며,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즉시 차단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들은 행·보통·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4890개사로 늘린다. 각 금융사는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 입급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단, 금융거래 중단 이후에도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을 이유로 인출이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을 허용한다.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사망신고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공유돼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안송진 기자 asj1231@

이번주 전국 7개 단지서 2852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 등 청약

9월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물량이 크게 늘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28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021가구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 경기 성남시 신흥동 ‘성남북정2A1(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등에서 청

약을 진행한다.

성남북정2A1(신혼희망타운은 신흥동 81-4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총 892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 428가구를 제외한 본 청약 166가구를 이번에 공급한다. 본청약 분양기는 전용면적 55㎡ 기보형 기준 7억 6637만원~7억 9845만원, 전용면적 56㎡는 8억 1214만원이다.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 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3년, 재당첨제한 10년이 적용되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30년 5월이다. /안상미 기자

현대모비스, 로봇부품 사업 본격화 핸드·그리퍼 등 연구개발 역량 강화

액추에이터 시제품 납품 임박
센서·제어기 등 개발범위 확대
“사업화 할 수 있는 부분 검토”

현대모비스가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용 수주를 확보해 양산을 준비하는 한편 로봇 핸드와 그리퍼 등 후속 부품도 연구개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올 하반기 액추에이터 시제품 납품과 향후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와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아틀라스 양산 시점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로 했다. 로보틱스 부품 사업에서 확보한 첫 고객사다. 회사는 단기적으로 현대차그룹의 로봇 양산을 지원하고 향후 글로벌 로봇부품 시장으로 사업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 등을 활용해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핵

심 구동부품이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축적한 부품 설계와 양산 경험을 로봇용 액추에이터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로봇 구동계의 성능뿐 아니라 원가와 신뢰성을 함께 고려한 통합 설계도 진행하고 있다.

액추에이터에 이은 후속 제품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CES에서 핸드그리퍼와 센서, 제어기, 배터리팩 등을 로보틱스 연구개발 확대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조사기관들을 인용해 현재 약 75조원 규모인 글로벌 로봇 시장이 연평균 17%가량 성장해 2040년 약 8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채용에서도 로봇 핸드 개발 움직임이 확인된다. 로보틱스사업실은 7월 로봇 핸드 시스템 설계 인력을 모집한 데 이어 8월에는 핸드SW설계·모터설계·전장기구설계 등 3개 분야에서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다.

핸드SW설계 채용 공고의 조직 소개에는 차세대 로봇의 핸드 그리퍼와 초소형 액추에이터 개발이 명시됐다. 액추에이터와 모터, 제어기, 임베디드SW를 아우

르는 고성능 로봇 핸드 플랫폼 구축도 업무로 제시됐다. 공고에는 다관절 손가락의 움직임과 파지력을 제어하는 기술을 비롯해 기구·전장·SW 통합 최적화까지 개발 범위로 담겼다.

사업화 속도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 수주를 확보해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제품은 액추에이터다. 로봇 핸드와 그리퍼 등은 제품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개발 단계다. 핸드 관련 수주도 아직 없으며 구체적인 양산·상용화 목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에서 먼저 사업 기반을 마련하면서 핸드와 센서, 제어기 등 후속 핵심부품의 개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액추에이터 쪽은 수주까지 하고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며 “나머지는 아직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퍼나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화를 할 수 있을지부터 제품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SK케미칼, 소재·전력사업 호조… 실적 ‘날개’

3분기 영업이익 149% 증가 전망
리사이클 원료 등 수익성 개선 기대

SK케미칼이 주력 소재 사업의 건조한 수요와 자회사 전력 사업의 수익 확대에 힘입어 3분기에도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케미칼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분기에는 연결 기준 매출 7451억원과 영업이익 323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손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2분기 실적 개선에는 그린케미칼 부문의 주력 제품인 코폴리에스터 판매 증가가 주효했다. 코폴리에스터는 기존 폴리에스터 계열 소재보다 내열성과 내화학성 등이 뛰어난 고기능성 플라스틱으로, 화장품 용기와 생활·주방용품, 의료용 패

킹징 등에 사용된다.

코폴리에스터·모노머 사업은 건조한 수요에 힘입어 2분기 생산설비를 완전가동했다. 원료비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한 데 이어 3분기 초에는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추가 인상해 수익성을 방어했다.

자회사 SK멀티유틸리티(MU)의 전력 판매도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MU는 지난해 11월 LNG·LPG 열병합발전소의 상업 가동을 시작한 뒤 올해 5월부터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신규 수요처를 확보해 소매 전력 판매에 들어갔다. 2분기에는 전력 판매 실적이 일부 기간만 반영된 만큼 3분기에는 관련 매출과 이익의 반영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MU는 2027년부터 인근에 조성되는 SK그룹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도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 고객에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추가되면서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사이클 사업에서는 폐플라스틱 확보부터 재활용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포장재·포장폐기물규정(PPWR) 시행으로 재활용 포장재와 재생원료 사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료 조달과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능소재 사업은 전기차배터리와 케이블, 태양광 백시트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비스페놀 A(BPA)와 과불화화합물(PFAS) 등 유해 물질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체 소재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력 소재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가운데 MU의 전력 판매가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리사이클 원료의 자체 조달과 기능소재의 적용처 확대가 향후 사업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에코프로, 로봇용 배터리 시장 공략

소재 기술력 바탕 시장 수요 대응

에코프로가 휴머노이드 로봇 확산으로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하이니켈 양극재와 전고체 소재를 앞세워 로봇용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이어지는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작동 성능과 구동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배터리 무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배터리가 무거워지면 로봇의 하중이 증가해 관절 모터와 액추에이터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에코프로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에너지밀도가 높고 가벼운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가 초기 로봇용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높인 전고체 배터리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소재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기존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활용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개발도 병행한다. 기존 삼원계 양극재 생산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을 최적화해 양산 전환 기간을 단축하고 황화물계 고체전해질과 양극재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보원 에코프로비엔 연구개발담당 상무는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분야에서 독자적인 공정 기술을 확보해 국내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는 기존 삼원계 생산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을 최적화해 단기간에 양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현대제철은 지난 4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슨빌에서 ‘HPLS(HYUNDAI-POSCO Louisiana Steel)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개최했다. 현대차그룹 정익선 회장(가운데)이 시삽 셰리머니를 마친 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 8조 규모 美 전기로 제철소 ‘첫 삽’

HPLS 기공식… 정익선 회장 등 참석
미국 완성차 업체 공급처 확대 계획

현대제철의 8조원 규모 미국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공식을 계기로 첫발을 뗀다. 오는 2029년부터 자동차강판을 현지 생산해 미국 완성차 업체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슨빌에서 HPLS(HYUNDAI-POSCO Louisiana Steel)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HPLS는 총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입해 연간 270만톤의 판재류를 생산하는 전기로 제철소다. 자동차용 180만톤과 일반용 90만톤을 생산하며 오는 4분기 착공해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지분은 현대제철 50%, 포스코 20%, 현대차·기아 각각 15%다. 미국 최초의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열연·냉연·도금강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제철소에는 원료부터 제품까지 한 곳에서 생산하는 일관 공정이 구축된다. 철

광석과 천연가스로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한 뒤 철스크랩과 함께 전기로에 투입해 쇳물을 만든다. 이후 연속주조와 열연·냉연 공정을 거쳐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등 자동차강판을 생산한다.

현대제철은 HPLS를 통해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미국 완성차 업체로 공급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저감 생산체제 구축에도 나선다. HPLS는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전기로를 활용하고 향후 직접환원철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수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HPLS의 생산체제가 안정화되면 이를 국내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현대차그룹은 물론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차세대 모빌리티를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HPLS 전기로 제철소는 철강산업이 보다 자원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680마력·800V ‘초고성능’… 내부는 안락

YG의 CAR TALK **카톡**

볼보자동차 ‘EX90’

제로백 4.2초… 최대 350kW 급속충전

5m가 넘는 차체에 2.7톤을 웃도는 거구가 가속페달을 밟자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갔다. 최고출력 680마력, 최대토크 81.1kg·m의 성능을 갖춘 고성능 전기 SUV지만 운전자를 압도하는 자극적인 주행감보다는 탑승객의 편안함이 먼저 느껴졌다. 볼보자동차의 플래그십 전기 SUV ‘EX90’은 힘을 과시하기보다 여유롭게 분산하는 차에 가까웠다.

최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출발해 경기도 의정부까지 왕복 60km 구간을 주행하며 차량을 경험했다. 시승차 모델은 국내 판매 트림 가운데 상위 모델인 EX90 AWD 울트라 트윈모터 퍼포먼스다. 이 차량은 전장 5040mm, 전폭 1965mm, 전고 1740mm, 휠베이스 2985mm의 대형 SUV로 106kWh NCM 배터리와 듀얼 전기모터를 탑재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2초면 충분하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정숙성과 승차감이다. 속도를 높여도 전기모터 특유의 소음이 크게 들리지 않았고, 듀얼챔버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방지턱과 거친 노면의 충격은 그대로 실내로 전달되기보다 한 차례 걸러지는 느낌이 강했다.

주행 편의성도 뛰어났다. 회생제동을 강하게 설정하면 도심 정체 구간에서 브레이크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원페달 드라



볼보자동차 플래그십 SUV EX90. /양성운 기자

이브를 끄면 전기차 특유의 꿀렁임도 사라진다. 특히 크립 주행 기능을 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차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여 전기차 특유의 주행 감각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

EX90의 또다른 강점은 엔비디아, 퀄컴과 협업한 지능형 플랫폼 ‘휴진 코어’를 비롯해 첨단 센서 기반 안전 시스템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등 차세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술이 집약됐다. 덕분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반응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800V 전기 시스템과 최대 350kW 급속충전도 장점이다.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약 22분 만에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448km다.

실내는 화려함보다 볼보 특유의 면과 선의 간결한 디자인을 유지했다. 북유럽 특유의 절제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다만 공조장치를 비롯해 글러브 박스, 비상등 등 대부분 기능을 디스플레이로 설정해야한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러웠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로템, 방산·철도 이어 EP 키운다… 5년간 투자 3배 확대

(에코플랜트)

자동차·제철서 스마트물류로 확장
광양·부산항 AGV 수주 성과 지속
수소·철도 E&M까지 참여 확대
미래기술 사업화 전략 EP 구체화

방산과 철도가 성장을 이끄는 현대로템이 에코플랜트(EP) 사업에 대한 투자를 향후 5년간 3배 이상 확대한다. 이용배 사장이 연초 강조한 '미래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전략이 EP 부문에서도 투자 및 사업 확대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1일 당진사업장에서 열린 협력사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맞춰 협력사의 사업 참여 영역도 기존 자동차·제철 설비 중심에서 항만 무인 이송장비(AGV), 수소설비, 철도 E&M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현재 EP는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약 9%, 올해 1분기 8%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분기 매출은 1023억원(영업이익 39억원)으로 전년 동



현대로템 본사 및 연구소 전경. /현대로템

기 대비 20.7%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설비와 제철설비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온 EP는 기존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스마트 물류에서는 항만 AGV와 관제·충전 인프라,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추출기·충전소·출하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물류는 EP의 사업 확대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 분야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3년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에 부산 신항 7부두용 AGV 43대를 공급했다.

2024년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약 828억원 규모 자동화 부두 사업을 수주해 오는 2029년까지 AGV 44대와 관련 인프라를 공급한다. 해당 AGV는 최대 65톤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며 30분 충전 시 최대 8시간 구동할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DGT으로부터 부산 신항 7부두용 AGV 57대 추가 공급 발주의향서(LOI)도 수령했다.

이러한 연속적인 수주 실적은 선행된 기반 구축에서 비롯됐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0년 스마트물류사업실을 신설하고 당진 EP공장에 AGV 전용 생산라인과 주행시험장을 구축했다. 향후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 공략을 위해 AGV R&D와 주요 부품 국산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설비 역시 바이오가스 등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실제 매출을 내고 있다. 아직 국내 수소경제가 완전

히 활성화되지 않아 EP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사업 기반을 꾸준히 다지고 있다.

이 같은 EP 부문의 변화는 수소·무인화·AI 등 미래기술을 신속히 사업화하겠다는 이용배 사장의 경영 전략과 맞닿아 있다. 현대로템은 연초 EP의 주요 과제로 항만 AGV 등 AI 스마트물류 상용화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7월 로봇·수소 관련 조작을 통합한 RH사업부를 신설했고, 지난 6월에는 전사업부문의 R&D와 미래사업, 시설투자 등에 2028년까지 1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수소 관련 설비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항만 AGV는 RH 조직개편 이후에도 기존대로 EP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소추출 등 일부 수소설비 사업도 EP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체어2 슬림’ 허리 맞춤기능 등 강화

코웨이가 작은 크기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다기능 체어 ‘코웨이 비렉스(BEREX) 트리플체어2 슬림’을 출시했다. 6일 코웨이에 따르면 신제품은 몰입·휴식·회복 세 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비렉스 트리플체어’의 감각적인 디자인은 유지하면서도, 더 슬림해진 실루엣과 허리 맞춤 기능을 추가해 바른 자세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트리플체어2 슬림’은 트리플체어 무빙형 대비 부피를 9% 줄여 공간을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든바퀴 구조를 적용해 외관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이동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따라 의자 높이를 최대 5cm까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中企 인력난·청년 취업난 해소… 강소기업 1만3387곳 선정

중기중앙회, 평균임금 3500만원 상향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으로 조정
업력 기준 7년서 5년으로 완화
지역·업종·복지별 기업 검색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참 관참은 강소기업’ 플랫폼이 인재를 찾는 중소기업과 청년 등 구직자 간 연결고리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1만3387개를 일자리 매칭 플랫폼 ‘참 관참은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참 관참은 강소기업’은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 보유한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무·비재무 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플랫폼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참 관참은 중소기업’과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 사업 통합에 따라 개편했다

특히 올해는 구직 매력도와 고용 안정



‘참 관참은 강소기업’ 화면 갈무리.

성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평균임금 기준을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이상으로, 종사자 수 기준을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각각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업력 기준은 ‘7년’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선정된 기업은 ▲재무 평가모형 점수 평균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산총계 1억원 이상의 재무요건 ▲평균임금 3500만원 이상 ▲최근 1년 신규 채용 1명 이상, 퇴사율 최근 3개월 평균 15% 이하 ▲종사자 10인(스

타트업 5인, 건설업 30인) 이상 ▲업력 5년 이상 ▲산업재해, 임금체불, 사회적 물의 등 결격요건이 없는 곳을 두루 포함했다.

선정된 기업 정보는 ‘참 관참은 강소기업’ 홈페이지 메인화면(사진)의 검색창 또는 ‘기업찾기’ 메뉴의 ‘일자리지도’, ‘조간별 기업검색’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참 관참은 강소기업’ 플랫폼은 민관 협업 전용채용관, 우수기업 큐레이션 등 기능을 고도화하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우

수 중소기업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에 있다는 점에서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지역·업종·규모·복지 등 조건별로 검색하고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지도’에 들어가면 원하는 지역에 있는 ‘참 관참은 강소기업’이 지도에 표시돼 한눈에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해당 회사의 위치, 주요 제품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용 내용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결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지원 노력에 발맞춰 ‘참 관참은 강소기업’ 플랫폼도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의 소통을 돕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에이스침대

롯데百貨 강남점 새단장

동선 정비해 쇼핑 편의성 높여

에이스침대가 롯데백화점 강남점 매장을 새단장했다. 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 리빙관에 자리한 매장의 전반적인 공간 구성에 변화를 줬다. 여러 제품을 한눈에 살펴보고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동선을 정비하는 한편, 각 제품의 디자인과 특색이 돋보이도록 공간을 구성해 한층 쾌적한 쇼핑 환경을 완성했다. 매장에선 에이스침대의 베스트셀러부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롯데백화점 강남점.

LX하우시스

20주년 맞아 ‘지인페스타’

창호·주방 인테리어 제품 할인 혜택

LX하우시스가 ‘LX Z:IN’ 브랜드 출범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5일까지 하반기 최대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감사 행사 ‘지인페스타’를 개최한다. 6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이벤트 기간 동안 창호·주방·바닥재·벽지·도어·단열재 등 LX Z:IN 제품이 포함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할 경우 제품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을철 교체 수요가 많이 몰리는 창호 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국내 대표 고단열 창호 ‘뷰프레임’은 물론 PL(플라스틱)시스템창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김승호 기자

엠앤씨솔루션, K-방산 기술 앞세워 유럽 공략 본격화

폴란드 MSPO 첫 참가 핵심기술 공개
현지 방산기업과 공동개발·생산 협의
폴란드 거점 유럽·북미·중동 진출 추진

모션&컨트롤(Motion&Control) 방산 전문기업인 엠앤씨솔루션이 K-방산 무기체계에 공급해 온 핵심 구동·제어 기술을 앞세워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 나선다.

엠앤씨솔루션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MSPO 2026’에 처음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MSPO 2026 엠앤씨솔루션 부스이미지. /엠앤씨솔루션

MSPO는 폴란드 국방부와 군 관계자, 글로벌 방산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다. 엠앤씨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유압·전

기식 구동제어 시스템과 포·포탑 구동장치, 서보밸브, 압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ISU) 등을 선보인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한국산 무기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이들 무기체계에 구동·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엠앤씨솔루션은 K-방산의 현지화에 맞춰 폴란드 공급망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시 기간에는 폴란드 주요 방산기업 및 관계기관과 만나 공동개발과 부품 공급, 기술 협력, 현지 생산 방안을 논

의한다.

기존 K-방산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폴란드 자체 무기체계와 차세대 지상 플랫폼 분야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과 북미·중동 시장에서 현지화 및 직접 수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병근 엠앤씨솔루션 대표이사는 “MSPO 2026은 폴란드 및 유럽 방산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등의 현지화 사업을 넘어 폴란드 기업들과 공동개발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 유럽시장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6년 9월 16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 제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최승재 중소기업 ombudsman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40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14:40~15:10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강 연	15:10~15:40	김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전무 : 농업 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15:40~16:10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16:10~16:40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IDC 글로벌 기업 유치에 필수… ‘해저케이블’ 지원 시급

KT, 증설·관리에 5년간 1조 투입
SKT, ‘SK호라이즌’ 통해 3조 마련
LG U+, 데이콤크로싱 통해 운영

국내 해저 케이블 용량 부족 ‘여전’
AIDC 특별법에 투자 지원 근거 절실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이 바닷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저케이블망이 글로벌 데이터 폭증에 대응할 주요 인프라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비와 AI 데이터센터에 비해 부족한 정책 지원은 해저케이블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6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따르면 해저케이블은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99% 이상을 전송한다. 구글·유튜브 같은 글로벌 서비스 이용부터 해외 데이터센터 간 정보 교환까지 국가를 넘나 드는 데이터 대부분이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달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AIDC)가 늘어나면서 해저케이블의 전략적 가치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심해에 설치된 광섬유를 통



KT 박운영 대표가 지난 7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저케이블 투자 규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 위성이나 지상 무선망보다 초저지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사들이 AI DC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저케이블 증설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KT는 해저케이블 증설 및 노후화 관리에 2031년까지 5년 동안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제 회선

공급 용량인 38Tbps(테라비트)에서 128Tbps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을 패키지를 통해 기업간거래(B2B) 매출을 9000억원 수준에서 약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한 'SK호라이즌'을 통해 약 3조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와 해

저케이블 사업을 추진한다. 국제 해저 케이블 SJC2 컨소시엄 기동으로 확보한 9Tbps급 전송 장비에 더해 해저케이블을 단계적으로 증설한다. 향후 미국, 일본, 대만이 참여한 E2A 컨소시엄이 2028년 상용화되면 총 공급 용량은 16Tbps까지 확대된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데이콤크로싱을 통해 컨소시엄과 임차 등을 병행하며 국제 해저케이블망을 운영하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증설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충남 태안에서 운영중인 육양국에 스마트 관제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해저케이블과 육상 통신망의 연결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통신 3사의 이 같은 노력에도 AI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국내 해저케이블 용량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까지 포함해도 총 공급 용량은 200Tbps에 그친다. 운용 중인 해저케이블도 12개 수준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일본(50개)에 못미친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 시행될 AIDC 특별법에 해저케이블에 대한 투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저케이블은 AI DC와 함께 AI 인프라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인데도 세액공제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해저케이블 신규투자에 보조금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해저케이블 구축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와 어민 보상 등 각종 절차까지 거치면 기업이 구축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해저케이블이 없는 AI 데이터센터를 값비싼 창고로 인식한다”며 “AI 인프라 투자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해저케이블 구축에 대한 지원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국민 누구나 AI 무료·무제한 이용… 오는 12월 ‘모두의 AI’ 출격

오늘 AI

과기부, ‘모두의 AI’ 사업자 간담회
3개 컨소시엄 협업… 국산 AI 차별화
사이버보안 분야서 자체 역량 확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이 기술 개발을 넘어 국민이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AI 주권’ 확보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카카오와 SK텔레콤, KT가 오는 12월 전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출시하고, 네이버클라우드도 국내 사이버보안 환경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최근 미국의 고성능 보안 AI 모델 수출 통제로 해외 기술 의존에 따른 위험이 부각된 가운데 국산 AI를 국민 생활과 안보 영역까지 확산하려는 전략이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카카오·SK텔레콤·KT 등 3개 컨소시엄의 서비스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기반으로 범용 AI 챗봇과 공공·특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베타서비스를 시작하고 12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인다.

연내 공개되는 범용 AI 챗봇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3개 컨소시엄은 연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500만명, 내년에는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내년부터는 신청·예약·결제 등 실제 업무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 4900만 카툰부터 전화·문자까지… ‘3사 3색’ AI

카카오는 4900만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핵심 접점으로 활용한다. 카카오의

카나나와 LG의 ‘엑시원’ 등 국산 AI 모델을 기반으로 정보 탐색부터 신청·예약·결제까지 하나의 대화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SK텔레콤은 전화와 문자를 기반으로 한 ‘실행형 AI’를 내세웠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인증부터 신청·결제까지 AI가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KT는 공공·교육·금융·쇼핑 등에 AI를 내재화한 뒤 하나의 범용 AI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이음 인사이트’ 전략을 추진한다. 다음·무신사·직방·다나와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개 컨소시엄 간 경쟁보다 협업에 무게를 둔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국산 AI 반도체 등 그동안 확보한 기술을 모두의 AI를 통해 실제 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외산 AI 서비스 대비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모두의 AI 서비스는 실패할 것”이라며 안전성과 신뢰성, AI 에이전트 강화를 주문했다.

◆ ‘미토스’ 수출통제 충격…국산 보안 AI 키운다

정부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자체 AI 역량 확보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사업자로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네이버클라우드를 주관기관으로 LG CNS, LG AI연구원, LG유플러스, 샌즈랩, 이스트시큐리티와 KAIST, 서울대, 고려대, 포스텍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한다.

컨소시엄에는 이달부터 최대 10개월 동안 엔비디아 B200 그래픽처리장치(GPU) 256장이 지원된다. 우선 5개월간 지원한 뒤 중간평가를 거쳐 나머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미국 엔트로픽의 고성능 사이버보안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수출 통제 사태는 자체 AI 역량 확보 필요성을 키웠다. 해외 AI에 의존할 경우 각국의 수출 통제와 공급망 정책에 따라 국내 산업과 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도 재정비됐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하며 “프론티어 AI 자체 역량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의 AI 전략은 국산 모델을 ‘만드는 경쟁’에서 국민이 실제로 ‘쓰는 AI’와 국가가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오는 12월 모두의 AI와 국산 보안 AI가 외산 서비스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AI 주권’ 전략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서울세계불꽃축제’서 5G 단독모드 상용망 운영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적용

KT가 5G 단독모드 상용망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KT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서 5G 단독모드(SA)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했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 인파가 일시에 몰린 행사 현장에서는 트래픽 급증으로 데이터 지연이나 통신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현장 상황실로 영상을 실시간 전송해야 하는 무선 감시 장비는 통신 혼잡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같은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KT는 통신망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했다. 5G SA 환경에서 가능한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통신망을 용도별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일반 관람객 트래픽과 분리된 안전관리 전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 행사장에서 KT 직원들이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한 단말로 현장 안전관리용 통신망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KT

용 통신망을 독립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혼잡한 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번 행사에서 별도 전용회선 구축 없이 행사장 주요 구역의 인파 밀집도와 현장 상황을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으

로 관제했다.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적용된 무선 CCTV 25대를 운영하고 영상을 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했다. 또한 안전요원에게 지급한 긴급 연락 단말 10대도 슬라이싱 망을 통해 지휘 채널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은 5G 단독모드(SA)다. KT는 코어망과 기지국이 모두 5G 전용으로 구축된 5G SA 상용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이동통신 3사중 유일하다.

회사 측은 지난 6월 광화문 월드컵 거리응원 현장에서 확인한 통신 안전성 검증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5G SA 상용망 운용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향후 대형 행사와 산업 현장, 공공안전 등 통신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LG U+, 건설사와 PMDC 얼라이언스 구축

(사전 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

GS건설·자이C&A 등과 ‘맞손’
공사 기간 단축, 품질 일관성 ↑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 건설사와 손을 잡는다.

LG유플러스는 GS건설·자이C&A·간삼건축·D&O CM과 사전 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전 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는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 등을 표준화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현장 중심 구축 방식보다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수요 변화에 맞춰 인프라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이번 얼라이언스 참여사들은 지난 4월

부터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PMDC를 적용하기 위해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해왔다. 100MW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PMDC 모델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신규 구축형 모델과 기존 건축물을 AI 인프라에 맞게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레트로핏 모델을 검토했고, 국내 데이터센터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와 기술사양을 구체화하고 각사의 역할 및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갖춘 PMDC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LG유플러스는 LG그룹 내 AIDC 구축 역량과 외부 전문기업 설계·건축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PMDC 모델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향후 AIDC 건축기간 단축과 운영 효율성 향상 등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채권혼합부터 지분 보유주까지”... ‘삼전·닉스’ ETF 다변화

개인 매수 95% 반도체 대장주 집중
선두 상품 반년 새 순자산 4조 돌파
퇴직연금 안전자산 분류 활용 확대
레버리지·AI반도체에 자금 몰려
배당·자사주 소각 겨냥 상품 선택

올해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순매수 자금 중 약 95%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린 가운데, ‘반도체 투톱’을 타깃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군이 채권 혼합과 주주환원 수혜주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두 대장주와 채권을 결합한 ‘채권혼합형ETF’ 시장이 6파전으로 확대되면서, 대장주 파생 상품으로의 자금 흡수도 한층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 ‘채권+주주환원’으로 투자 다변화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채권혼합 상품 중 가장 먼저 출시된 KB자산운용의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은 상장 당시 순자산 321억원에서 약 6개월 만에 4조 685억원으로 12배 이상 급증했다. 이날 기준 기존 6개 관련 상품 전체 순자산(6조 3507억원)의 64%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유가증권시장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국채혼합50’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타깃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군이 채권 혼합, 주주환원 수혜주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혼합50’ 등이 신규 상장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핵심 축으로 담은 채권혼합형 ETF는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늘어났다.

미래에셋운용은 두 대장주를 각 25%씩 담은 한편, 나머지 50%를 만기 1년 이하 미국 국채로 채워 주식·채권 분산과 더불어 원화·달러 통화 자산 분산 효과를 노렸다. 한투운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 20%씩 담고, AI 반도체 연관성이 높은 삼성전기를 10% 추가 편입해 주식 비중을 차별화를 뒀다.

자산운용사들이 삼전·닉스 채권혼합 ETF를 잇따라 출시하는 이유는 퇴직연금(DC·IRP) 규정과 맞물려 있다. 현행법상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내에서는 위험자산(주식형 ETF 등)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된다. 하지만 채권 비중이 50% 이상인 채권혼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100%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자산 한도 70%를 주식형 ETF로 채우고, 남은 안전자산 30%를 주식 비중이 절반인 채권혼합 ETF로 채우면 전체 계좌의 실질 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 85%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 개미들 ETF 시장에서도 ‘삼전·닉스’ 싹쓸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

수한 종목은 삼성전자(51조5986억원)와 SK하이닉스(48조3143억원)으로,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순매수 금액의 약 95%가 몰려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투톱 쏠림 현상은 ETF 시장에서도 두드러진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6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3조3267억원)였으며,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조8506억원)와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조5153억원) 등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지난 3월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 수준으로 편입하며, SK스퀘어를 포함한 국내 AI반도체 관련 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성장 수혜를 누리는 구성이 주목되면서 높은 선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에는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6조4624억원이 불어났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특별배당과 SK하이닉스 40조원 자사주 매입·소각 등 두 기

업의 주주환원 모멘텀을 활용하는 상품도 나타났다. 지난 1일 키움투자자산운용은 ‘KIWOOM 삼성SK그룹TOP4’ ETF를 신규 상장했다. 해당 상품은 이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 등 4개 종목을 중심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SK 등 지분 보유 기업까지 함께 편입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에 따른 수혜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직접 투자를 넘어 지분 수혜주, 채권 혼합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타깃으로 한 상품 라인업이 한층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ETF라는 ‘바스켓’을 활용하는 것이 변동성 위험을 낮추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임은혜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자 독식 성격이 짙은 AI 테마 트렌드에서 대장주가 될 종목을 직접 발굴하는 리스크를 줄이려면 바스켓으로 묶어 분산 투자하는 ETF의 장점이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며 “ETF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바스켓 분산으로 방어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패권 기업이 창출하는 막대한 이익의 혜택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AI 인프라 기대에 통신장비주 ‘들썉’

주요 종목 올해 투자릿수 상승세
통신장비 절반 이상 흑자전환
美 대중 광통신 규제 수혜 기대

인공지능(AI) 시장에 기댄 통신장비주 주가가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통신장비주인 오이솔루션은 39.0% 상승했다. RFHIC(37.8%)·RF머트리얼즈(33.3%)·LIG아큐버(20.3%)·솔리드(9.0%)·유비쿼스(3.4%) 등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 등락률은 -14.0%였다.

실적이 뒷받침한 덕분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통신장비 9개사 중 RFHIC(112억원), 유비쿼스(90억원), LIG아큐버(56억원), RF머트리얼즈(53억원), 솔리드(35억원) 등 절반이 넘는

업체가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오이솔루션(-9억원), 케이엠더블유(-63억원), HFR(-77억원) 등은 아직 적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3G·LTE·5G를 거치며 무선장비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도업체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쏠림 현상’이 반복돼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AI 기지국(AI-RAN) 시장으로 사업을 넓히는 데 대해 “국내 중소 아웃소싱 업체들은 무선송수신장치(RU) 부품·프론트홀·인빌딩 장비 쪽에 주로 포진해 있다”며 “시장 확장의 기회를 누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주가 전망도 밝은 편이다. AI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는 소식에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은 더 커진 모양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 움직임도 국내 광통신주에는 우호적이다. 지난달 초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가 데이터센터용 중국산 광트랜시버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국내 광통신 밸류체인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다. 이찬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시 “규제 논의가 미국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공급처 다변화를 촉진할 경우 비중국 광통신 업체에 중장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장(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비해 실적과 주가 모두 갈 길이 멀다.

광통신용 반도체 기반을 만드는 미국 AXT는 일회성 비용을 뺀 실질 마진(비GAAP 매출총이익률)이 2분기 45.0%에 달했다. 1분기는 29.9%였다. 레이저·광부품 업체인 루멘텀 역시 마진이 50%를 넘어섰다.

/김아영 기자 aykim@

신한투자증권, 숏폼 공모전 수상작 5편 선정

총 151편 접수 대상 상금 10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숏폼 영상 공모전 ‘신한프리미어 필름 페스타(Premier Film Festa)’를 성황리에 마치고 수상작 5편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신한금융그룹의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Premier’가 지향하는 ‘고객중심 자산관리’ 가치를 ‘신한Premier와 함께하는 나’라는 테마로 일상 속에서 풀어내고자 기획됐으며, 약 2달 동안 총 151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참가자들은 AI 영상도 활용하는 등 장비나 경험에 상관없이 60초 이내 숏폼 영상으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표현했다.

접수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의 예심과 임직원 본심을 거쳤다. 예심에서는 주제 적합성과 완성도, 대중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상위 10편을 추렸고, CGV여의도에

서 열린 본심에서 임직원 45명이 투표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등 최종 5편을 선정했다.

신한Premier 대상에는 정지현 감독의 ‘인생에도 줌아웃이 필요하다’가 선정됐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인생의 문제들과 신한Premier와의 연결을 담은 스토리, 위트있고 감각적인 표현이 돋보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은 조형진 감독의 ‘hani 였네’가 차지했으며, 우수상 3편은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 라운드’(지병주), ‘화성에서 온 신한, 금성에서 온 당신’(김동하·김창경), ‘나의 프리미어 두개비’(김나영·강지혜)가 수상했다. 신한Premier 대상엔 10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 등 총 2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목표전환형 펀드 불완전판매 점검

평균목표 달성 753일서 57일로 단축
투자자 71.8% 선취수수료형 선택

금감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권의 주요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목표전환형 펀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다 사전에 정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설정액은 2023년 2000억원에서 2024년 1조4000억원, 지난해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2000억원이 설정됐다.

문제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목표수익률 달성 기간이 크게 짧아졌다는 점이다. 평균 목표 달성 기간은 2018년 753일에서 올해 상반기 57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자의 71.8%는 가입할 때 판매수수료를 먼저 내는 A클래스를 선택했다.

A클래스는 판매보수가 낮아 통상 2년 이상 장기 투자할 때 유리하지만, 목표수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익률을 단기간에 달성해 환매하면 선취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실적을 위해 수수료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환매와 신규 상품 재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증권, 퇴직연금서 개인투자용 국채 거래

10·20년물 첫 청약 9일부터 15일까지

KB증권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투자자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고 개인의 안정적인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저축성 국채로,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 고

객의 노후자산 운용 선택지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B증권은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4일부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로 구성되며 매월 20일 발행을 원칙으로, 발행일 전 7영업일 동안 청약을 진행한다. 발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발행된다. 첫 청약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18일 발행일 예정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적용된다.

/신하은 기자

aT, 할랄시장 규제 대응... K-푸드 진출 돕는다

9일 'K-푸드 할랄시장 전략 세미나' 2028년 2조 달러까지 성장 전망 중동·러시아 소비동향 등 소개 기업 수출 단계별 지원 연계도

K-푸드 관련해, 국내 주무기관·업체들의 할랄시장 섭렵이 확대된다. 서아시아 국가 대상의 세미나를 개최해 소비동향을 파악하고 동남아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등 규제 강화에도 기민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6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9일 중동과 러시아·CIS 등 할랄 유망시장을 주제로, 'K-푸드 할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 세미나'가 온라인상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aT 주관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중동과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K-푸드 소비동향 ▲중동 할랄시장 마케팅 전략과 통관·유통정보 ▲러시아·CIS 할랄시장 동향 및 관련 규정 ▲할랄인증 취득 절차와 실무 유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aT는 올해 3월부터 중국·미국·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국제 할랄산업은 무슬림 인구 증가와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디나르 스탠다드에 따르면 할랄식품 시장은 2023년 1조4340억 달러에서 2028년 2조80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전망



한 국제식품박람회를 찾은 중동 바이어들이 K-푸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aT

이다. 이번 세미나는 수출기업이 시장 진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다.

먼저 aT 두바이지사는 현지에서 파악한 중동지역 K-푸드 소비동향과 시장 변화를 소개한다. 이어 할랄무역마케팅센터(HIMC)의 중동 시장 전문가인 토마스 게레로 대표가 현지 유통구조와 소비 특성을 바탕으로 K-푸드 마케팅 전략과 통관·유통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러시아·CIS 지역에 대해서는 aT 모스크바지사가 현지 K-푸드 소비동향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공유한다. 또 러시아·CIS 할랄시장 동향과 관련 규정 등 기업이 시장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한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국가와 인증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 소개에 나

선다.

aT는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할랄 시장에 대한 기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시장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상품개발, 인증, 마케팅, 물류 등 수출 단계별 지원을 연계해 기업의 신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포스터의 QR 코드를 활용해 사전 접수할 수 있다. 당일 aT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된다. 세미나 종료 후 녹화 영상은 농식품수출정보(KATI)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한 aT 수출식품이사는 "할랄시장은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큰 동시에 국가별 소비문화와 인증·통관·유통환경이 서로 달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필요한 시장·

규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T는 앞서 지난달 중순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남아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약 200명이 참석한 해당 설명회는 동남아 주요국의 규제의 초점을 맞췄다. K-푸드의 주요 수출시장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할랄인증 의무화, 식품안전 관리 강화, 라벨링 규정 개편 등 수입규제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고, 한국식품연구원과 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렸다. 또 인니 전문기관은 할랄인증 및 SNI 의무화 동향과 대응방안을, 베트남 기관은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과 기업 대응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특히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최신 제도 변화만 아니라 현지에서 실제 적용되는 규제와 기업 유의사항이 공유됐다.

특히 인구 3억대를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시장은 K-푸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해당 세션에서는 ▲인니 비관세장벽 동향 ▲할랄 인증 취득 절차 및 유의사항 ▲할랄인증 및 국가표준(SNI) 의무화 동향·대응방안 등이 소개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한남-LH 노후 공공임대주택 난방시설 교체 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가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난방 효율을 높여 입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

한남은 에너지효율향상(EERS) 사업의 일환으로 '부담↓ 따뜻↑ 한남-LH효율+' 브랜드를 론칭하고, 분당·광교·화성 권역 내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의 노후 열교환기 고온부 보존재 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간 사용으로 열손실이 컸던 열교환기 120대의 보존재 교체 비용 전액이 지원됐다. 기계실 내 불필요한 열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세대로 공급되는 열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입주민의 실질적인 난방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성남시 도촌섬마을 9단지에서 입주민 대상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치며 사업 효과와 동절기 효율적인 지역난방 사용법, 생활 속 저탄소 실천 수칙 등을 전파하기도 했다.

하동근 한남 사장은 "국가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두 공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가스공사 오권택 수소신사업단장(오른쪽)이 지난 3일 대구 본사에서 미국 석유협회(API) 안살리다 수석부사장과 수소산업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가스공사-API 수소·저탄소 에너지 글로벌 기술표준 제정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와 손잡고 수소 및 저탄소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기술표준 제정과 기술교류를 나선다.

가스공사는 지난 3일 대구 본사에서 API와 수소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PI는 전 세계 석유·천연가스 및 에너지 시설의 설계·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글로벌 공신력의 기술표준 제정 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소, 저탄소, 천연가스 분야의 글로벌 기술표준 제·개정과 신기술 정보 교류를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수소충전소 및 생산기지 운영,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축적한 설계·건설·운영 기술을 글로벌 표준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인 표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선진 기술자료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국내 수소사업 인프라의 기술 수준과 안전 관리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지속가능어워드 결선 진출

부산항만공사, 건강·안전·보안 결선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확립 사례
세계인들의 투표, 결선 심사 반영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가 전 세계 항만이 경쟁하는 '지속가능 어워드' 부문 결선에 올랐다.

부산항만공사는 국제항만협회(IAPH)가 주관하는 '2026 IAPH 지속가능어워드'(WPSP)에서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가 건강·안전·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국내의 해당 프로젝트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 사례다. 줄잡이 작업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부산항 줄잡이 안전작업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업해 전용 실습교육장을 구축하고 작업자들에게 이론·실습교육도 제공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항만 안전대책에 반영돼 전국 항만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해 왔다.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 보호 ▲인프라 ▲지역사회 공, ▲안전·보

건·보안 등 총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제시한다.

올해는 전 세계 항만에서 70여 개의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협회는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부문별 상위 3개, 총 18개 프로젝트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결선에서는 세계인들의 투표가 심사에 반영된다. 지속가능어워드 투표는 국제항만협회 공식 누리집 또는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한은 오는 10월2일이다. 투표 참여 후 화면을 갈무리해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소정의 경품(추첨)도 받을 수 있다. 투표 참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부산항만공사통계' 및 '부산항만공사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과거에도 세 차례에 걸쳐 지속가능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내 시민 친수공간 운영 사례로 지역사회 공헌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건설 골재 재활용'프로젝트로 인프라 부문 1위, 2025년에는 '재난·안전·보건 통합 시스템'으로 건강·안전·보안 부문 1위에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협력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민간기술·제품 공동마케팅’ 설명회
중소 기술마켓 인증기업 등 참여

한국마사회가 협력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롯데리파크 서울 컨벤션홀에서 '민간기술·제품 공동마케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 설명회를 2026년 코리아컵 및 코리아스프린트 출발번호 추첨행사와 연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2개사와 말산업 협력기업 3개사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했다. 마사회는 코리아컵을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경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사료, 경주로 시설, 동물헬스케어 및 바이오 분야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다.

참여 기업의 면면도 다양하다. '가파'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신선한 새싹을 첨가한 혼합섬유질사료를, 'LS반도체'는 경주로 조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초고효율·경량 LED 투광등을 선보였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포스트바이오'는 동물용 헬스케어 및 진단 서비스 XQ-Station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티젤바이오'는 온도 감응형 하이드로겔 기술을 이용한 수술 후 통증 완화 솔루션 ez:AP를 개발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핵심 산업·통상 인재 50여명 영입

외부서만 최대 29명 민간 전문가 채용
3년 만에 '담당급 공모직위' 재시행

산업통상부가 메가프로젝트,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핵심 산업·통상 과제를 현장에서 전담할 인재 50여명을 영입한다. 정기공채와 별개로 민간 전문가 채용, 타 부처 전입, 담당급 공모직위 제도를 총동원해 현장 실무 인력을 즉시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법무·통상·AI·홍보 등 전문 직무를 중심으로 사무관급 10명, 주무관급 4명 등 임기제 공무원 최대 14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여

기에 인사혁신처 주관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민경채) 15명(5급 6명, 7급 9명)을 더해 외부에서만 최대 29명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한다.

내·외부 5~6급 공무원이 특정 핵심 업무를 2년간 전담하는 '담당급 공모직위' 제도로 3년 만에 재시행된다. 산업부는 9월 중 '미래자동차', '산업단지 AX', '제조현장 AI 팩토리' 등 3개 직위에 대한 공모를 거쳐 10월 중 선발을 완료하고, 연내 2개 직위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전 부처 대상 공모에서 역량 있는 6급 공무원이 선발될 경우, 최저승진연수를 적용받지 않고 조기 승진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부울경, 동남권 양자센싱 클러스터 선정… 딥테크 전환 추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
부산대·UNIST 기술거점 역할
산업현장 시험부터 사업화까지
지역 주력산업에 양자기술 더해

부산·울산·경남이 양자센싱을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양자클러스터 공모에서 동남권 양자센싱 클러스터가 최종 선정되면서 3개 시·도는 연구 역량과 산업 기반을 묶는 초광역 양자 생태계 조성에 착수한다.

클러스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된다. 부울경은 양자센싱을 특화 분야로 육성하고 양자소재·부품·장비 기술과 양자알고리즘을 결합해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은 부산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기술거점 역할을 맡는다. 산업 현장과의 연결고리는 조선·해양과 항만·물류,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에너지 등 4개 수요거점이다. 개발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시험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춘다.



따능시에 의해 생성된 부산·울산·경남이 공동 추진한 동남권 양자센싱 클러스터안 이미지.

특히 클러스터의 지향점은 양자기술의 산업 전환이다. 부울경이 기존에 확보한 주력산업 경쟁력에 양자기술을 더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만드는 딥테크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별 적용 과제는 현장 수요에서 출발한다. 조선·해양과 항만·물류를 비롯해 우주항공·방산 및 모빌리티·에너지 분야에서 양자센싱의 활용 가능성을 찾아낸 뒤 수요와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

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남은 우주항공·방산과 조선·해양 그리고 기계·모빌리티 분야를 바탕으로 수요 발굴과 기술 검증에 참여한다.

연구성과의 기업 이전을 돕는 사업화 체계도 구축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확보한 기술을 찾아내 검증하고 실증한 뒤 기업의 사업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동남권을 연구성과가 기업 혁신과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양자기술 사

업화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양자산업 인력 양성도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양자 융합인재 양성체계를 통해 기술개발과 산업 적용은 물론 기업의 사업화와 전문인력 배출을 함께 추진한다.

사업 재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부산·울산·경남은 정부출연금에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매칭해 같은 비율로 부담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비와 지방비 규모는 정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단체장은 공동 입장을 내고 이번 선정을 지역 경계를 넘어 협력한 성과로 평가했다. 3개 시·도 단체장은 “이번 국가 양자클러스터 선정은 부산·울산·경남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원팀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부울경의 탄탄한 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에 양자센싱·소부장·알고리즘 기술을 결합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남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퀀텀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광주GT’ 체험 축제로

전남광주특별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축제인 ‘전남광주GT’의 외연 확대에 나선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이틀간 개최돼 경기와 체험을 결합한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대회는 오는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전남내구와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을 비롯한 7개 종목에 150여 대의 차량이 출전에 기량을 겨룬다. 특히 전남내구는 120분 동안 달린 거리를 기준으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광주=양수병 기자

영천시

오는 11일 렛츠런파크 개장

영천시는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이 오는 11일 첫 영업을 시작하고 13일 공식 개장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서울(파천), 제주, 부산경남에 이어 국내 네 번째 렛츠런파크로, 17년의 기다림 끝에 문을 연다.

렛츠런파크 영천은 경마 관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경주로 안쪽 넓은 공원에서 피크닉과 산책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개장 이후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도 운영될 예정이다.

공식 개장일인 13일에는 첫 경주인 ‘개장 기념 특별경주’와 함께 아리랑태무시범단, 육군3사관학교 군악대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영천(경북)=김준환 기자 kih9@

전남광주 김치, 美·英 수출길 올라

총 1.5톤 김치, 美 로스앤젤레스 진출
내달엔 영국으로… 현지 행사 예정

전남광주의 프리미엄 김치가 9월 미국 식탁을 공략하는데 이어 10월에는 영국 시장에 진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3일 빛고을김치 영농조합법인, ㈜해담촌, 다산평가 등 지역 기업 3개사가 생산한 배추김치, 갓김치, 묵은지 등 총 1.5톤(약 1만달러 상당)을 선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수출은 현지 프리미엄 김치 수요에 발맞춘 것으로 고품질 김치 위주로 구성됐다. 제품별 수출 가격은 1kg당 ▲배추김치 7000원 ▲갓김치 9000원 ▲묵은지 9000원이다. 일반 김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단가를 형성하며 현지 고급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세계김치연구소, 한식세계화총연합회와 협력해 지난



전남광주김치의 미국 수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2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김치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영국시장에 진출하며, 10월21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광주 핫 김장김치 맛보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를 계기로 미주 시장 확대는 물론 유럽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양수병 기자 ysn6313@

전남광주시, 한우 개량 성과 겨룬다

오는 10일 ‘으뜸한우 경진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우 농가의 개량 성과와 우수 혈통을 평가하는 경진대회가 강진에서 개최된다. 강진군은 우수 한우 선발과 고급육 평가를 통해 농가의 개량 의지를 높이고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농협전남본부가 주관하는 제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으뜸한우 경진대회’는 오는 10일 강진 가축시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우량한우 선발대회와 고급육 품평회로 구분해 진행된다.

우량한우 선발대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9개 시·군을 대표하는 암소 74두가 출품된다. 출품축은 암송아지와 미경산우 및 경산우 부문으로 나뉘어 체형과 혈통을 비롯한 개량 성과를 기준으로 평

가받는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농가에는 특별시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전체 수상 농가는 20곳이며 지급되는 상금은 모두 6000만원 규모다.

고급육 품평회에는 거세우 36두가 참가한다. 출품축은 도축 이후 품질평가를 거쳐 우수 개체가 가려진다. 생산 단계에서의 개량 성과뿐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점검하는 평가라는 의미도 있다.

강진군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탄소중립 한우산업 전환에 대응해 9년째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으뜸송아지 선발과 우수 혈통 보급을 지원한다.

/강진(전남광주)=양수병 기자

영주시, 향후 4년 복지정책 새 틀 마련

고령화·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대응
문제 조기파악 협력체계 구축 박차

영주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및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할 2027~2030년 복지정책의 새 틀을 마련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내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생활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제6기 영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항병직 영주시장을 비롯해 영주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및 민관협력 전담팀과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계획안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제6기 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의 목

표와 실행과제를 담는다. 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돌봄 수요 확대 및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주요 지역 현안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아동·노인·장애인 돌봄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고용 및 주거와 교육 분야의 사업도 발굴했다.

향후 과제는 복지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위기 시민을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느냐에 있다. 의료기관과 교육기관 및 읍·면·동과 지역사회단체까지 연계해 고독과 고립 및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는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구미시, 민선9기 한 달 만에 투자유치 1조

‘첨단산업혁신 TF’로 투자 지원

구미시가 민선9기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반도체·K-푸드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 기업은 자화전자, AGC화인테크노, 오투기, 윌텍스다. 삼성전자와 삼성 SDS도 19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구미시는 ‘첨단산업혁신 TF’를 구성해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AI로봇반도체 소재부품·이차전지·미래 모빌리티 등 대경관 4대 핵심 성장엔진과 구미 주

력산업의 연계도 추진한다.

민선 8기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과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국책사업 6개를 유치했으며, 이를 토대로 1001개 기업으로부터 누적 16조원이 넘는 투자와 1만2252명의 고용을 이끌어냈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면서 동구미역 신설이 가시화됐고, 2025년에는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했다. 시는 김천~구미~신공항 연결철도와 KTX 구미역 정차도 추진해 신공항과 국가산단을 잇는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사천시

에어쇼 ‘관람객 등록제’ 시행

사천시가 ‘2026 사천에어쇼’를 찾는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람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을 마치면 현장에서 별도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장할 수 있다.

등록은 9월 7일부터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 25일까지 사천에어쇼 공식 누리집이나 QR 코드·링크 주소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셔틀버스탑승장과 우주항공청·용당MRO 임시주차장 현장 등록대를 이용할 수 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식품·유통업계, ‘소용량·저가·간편’ 맞춤형 미니멀리즘 확산

CJ제일제당 초소용량 햇반 출시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용량 세분화
오뚜기 1인용 파스타 라인업 강화

고물가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 건강과 효율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맞물리면서 식품과 외식업계의 제품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최근 업계는 제품 용량이나 메뉴 수를 과감히 줄여 가격 장벽을 낮추는 ‘불황형 가성비’ 전략과, 소식 및 간편 조리 수요에 맞춘 ‘한 끼 세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모습이다. 과거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비판받았던 ‘슈링크플레이션’과 달리 용량을 축소하는 대신 가격을 함께 내리거나 조리 편의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확실한 소비자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외식과 음료 분야에서는 운영 효율화를 통해 가격 문턱을 낮춘 제품들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양유업은 기존 250ml 제품 대비 용량을 50ml 줄



햇반 부드러운 미니밥. /CJ제일제당

인 200ml 컵커피 ‘프렌치카페 악마의 유혹’ 2종을 900원에 선보이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을 빠르게 흡수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출시 약 3주 만에 초도 물량이 소진되며 긴급 추가 생산에 들어갔다.

한식 뷔페 브랜드 자연별곡 역시 약 100종에 달하던 메뉴를 보쌈과 제육볶음 등 선호도가 높은 60여 종으로 대폭 압축하고 operational cost를 줄여 평일 가격을 최대 1만 원가량 낮췄다. 그 결과 신규



프렌치카페 악마의 유혹 200ml 2종. /남양유업

메뉴 방식을 적용한 평촌점의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써브웨이 또한 커스텀 주문 방식을 단권화한 고정 레시피 메뉴 ‘피자썸’을 4300원에 출시하며 가격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용량 축소는 가격 인하를 넘어 소비자의 세분화된 식습관을 겨냥하는 방향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기존 210g 표준 제품과 130g 제품보다 더 적은 110g 초소용량



오뚜기 냉장파스타 2종. /오뚜기

‘햇반 부드러운 미니밥’을 출시해 식사량이 적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려는 소식·식단 관리족의 수요를 정확히 짚어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즉석밥 시장 내 130g 이하 소용량 제품 비중은 2024년 상반기 9%대에서 올해 상반기 16%대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이러한 트렌드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오뚜기와 대상 청정원 등은 면을 따로 삶을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로 조리하거나 별도 부재료 준비 없

이도 일품요리가 완성되는 1인분 파스타 라인업을 강화하며 ‘집밥’의 조리 수고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결국 한 끼 시장을 용량과 조리 시간에 따라 촘촘히 나누는 전략은 포화 상태인 식품·외식 시장에서 표준 규격이 맞지 않았던 틈새 수요를 새롭게 발굴하는 차별화 수단이 되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과 가사 노동력을 동시에 덜어주는 식품·외식업계의 ‘맞춤형 미니멀리즘’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외식업계 입장에서 카테고리별 용량과 조리 시간에 따라 촘촘히 세분화하는 것은,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기존 제품군을 활용해 새로운 틈새 수요를 창출하는 매우 효율적인 차별화 수단”이라며, “고물가 기조와 1인 가구 확대가 지속되는 한 이 같은 ‘맞춤형 미니멀리즘’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전통시장·대형마트 차례상 비용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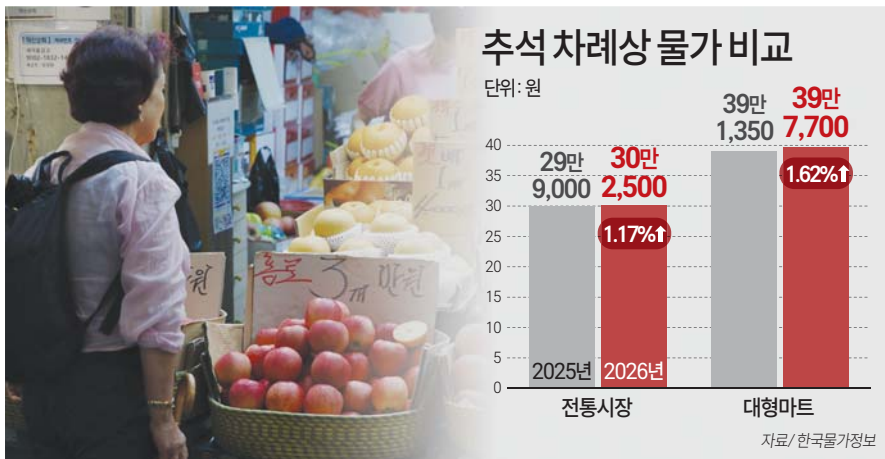
기상 악재에도 전체 비용영향 제한적
시장 30만2500원·마트 39만7700원
정부 할인지원 예정… 가격 변동 가능성

추석을 3주가량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악재에도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전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추석 차례상 주요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30만2500원, 대형마트 기준 39만77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3500원(1.2%), 대형마트는 6350원(1.6%) 증가했다.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최근 30만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2023년 30만9000원, 2024년 30만2500원에서 지난해 29만9000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올해 다시 3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폭염과 집중호우 여파로 일부 채소류와 축·수산물 가격이 올랐지만 배추와 시금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제한했다.

품목별로는 애호박과 무 등이 기상 여



건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올랐고, 닭고기 등 일부 축산물과 수산물도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대를 나타냈다.

반면 사과·배 등 과일과 대추·밤 등 견과류는 큰 가격 변동이 없었다. 쌀과 밀가루, 과자류·주류 등 기타 품목도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추석이 3주가량 남은 만큼 명절 성수품 가격은 추가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농산물은 기온과 태풍 등 기상 상황, 산지 작황과 출하량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햇과일 출하가 확대되고 정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이 예정돼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은 일부 완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성수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별 가격 추이를 확인하면서 구매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장보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18만3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산물과 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농축산물은 최대 40%,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하고 전통시장에서는 구매액의 약 30%를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G마켓, ‘ChatGPT’ 전용 플러그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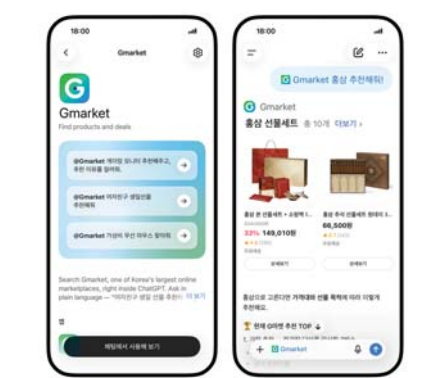
직접 상품 탐색·추천 서비스 제공

G마켓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ChatGPT’에서 상품을 탐색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쇼핑 전용 플러그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G마켓 ChatGPT 플러그인’은 ChatGPT에서 대화를 통해 원하는 G마켓 상품을 찾고 구매 페이지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다. ChatGPT에 로그인한 뒤 좌측 메뉴에서 ‘플러그인’을 선택하고 ‘gmarket’을 검색해 연동할 수 있다.

G마켓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오픈마켓 가운데 ChatGPT에서 직접 상품 탐색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마켓은 디지털·가전, 패션·뷰티, 마트·식품, 리빙·레저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상품 탐색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G마켓 앱이나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정확한 상품명이나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구매 목적과 상황, 예산, 사용 대상, 선호 조



G마켓 ‘ChatGPT’ 쇼핑 전용 플러그인 서비스 이용 화면. /G마켓

건 등을 자연어로 설명하면 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한다.

판매자에게는 기존 포털과 쇼핑 플랫폼 외에 ChatGPT를 새로운 상품 노출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고객이 대화를 통해 구매 목적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이에 부합하는 상품이 추천되는 방식이다.

G마켓은 향후 이용 패턴을 바탕으로 상품 추천 정확도를 높이고 적용 상품과 카테고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CU, 맥주·스낵 등 70여종 상품 할인

아시아 스포츠 대회 응원 수요 대응

CU가 오는 19일 개막하는 아시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주류와 안주, 스낵, 음료 등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5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되며 스포츠 대회 응원 수요에 맞춰 주류와 안주류를 비롯해 스낵, 음료 등 70여 종의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응원은 HOT하게, 쇼핑은 COOL하게’를 테마로 추석과 대회 기간이 맞물리는 점을 고려해 가족과 함께 경기를 보며 즐길 수 있는 명절 먹거리와 간식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주류는 오는 10일부터 청파오와 아사히

스타일프리 500ml 6입 번들을 최대 56% 할인한다. 19일부터는 카스캔 355ml와 500ml 24입 박스를 최대 24% 할인 판매한다. 잭다니엘 애플, 닛카 프론티어 등 위스키는 최대 20% 할인한다. G7 와인 4종(카베르네 소비뇽·소비뇽블랑·샤도네 이·메를로)은 2명 이상 구매 시 약 29%, 옐로우테일 2종(쉬라즈·카베르네 소비뇽)은 약 18% 할인한다.

안주류는 PBICK ‘하루한봉’ 시리즈를 비롯해 고추장 명태구이, 포슬 명태구이, 고추장 명태강 등 농산·수산 안주를 행사 상품으로 선보인다. 과일은 사인머스켓, 거봉, 맛배 3개입, 햇사과 3개입 등 소용량 상품을 중심으로 할인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NS홈쇼핑, ‘최강쇼’ 첫 방송… 프리미엄 상품 집중 소개

TV 홈쇼핑 콘텐츠 경쟁력 강화 나서

NS홈쇼핑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TV홈쇼핑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NS홈쇼핑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 ‘최강쇼’는 ‘상품도 최강, 혜택도 최강’을 슬로건으로 생활·뷰티·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품 경쟁력과 구매 혜택을 갖춘 제품을 선별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에서는 바디프랜드의 프리미엄 수면 브랜드 라클라우드의 ‘엘루나 모션 매트리스 침대’를 선보였다. 매트리스와 모션 기능을 결합한 제품으로 수면뿐 아니라 독서와 TV 시청, 휴식 등 상황에 따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방송에서는 킹 사이즈 309만원, 퀸 사이즈 299만원의 호텔식 패키지를 마련하고 할인 및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제공한다.

진행은 20년 경력의 강연진 쇼핑호스트가 맡는다. NS홈쇼핑은 단순 상품 소개를 넘어 제품의 기능과 차별점을 생활 밀착

형 콘텐츠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고객 소통을 위해 방송 중 NS톡을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NS홈쇼핑은 향후 최강쇼를 통해 프리미엄 상품군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유찬 NS홈쇼핑 TV콘텐츠사업본부 이사는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한 시그니처 상품을 깊이 있는 설명과 혜택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명절선물 수요 세분화… 백화점 ‘격’ 높이고, 이커머스 ‘가성비’

용도·예산별 맞춤경쟁 치열

백화점, 희소 식재료·경험형 확대
한우·과일 고급화 소포장 구성 강화
이커머스, 특가딜·할인 혜택 앞세워
편의점, 귀금속 등 이색상품 강화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체가 본격적인 선물세트 판매 경쟁에 들어갔다. 백화점은 희소성과 프리미엄, 경험형 상품을 강화하는 반면 이커머스는 대규모 할인과 큐레이션, 편의점은 이색 상품과 실용성을 앞세우며 업체별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추석 선물세트 판매전에서는 업체별 감정이 한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은 희소성과 고급화에 문화·여행·케이터링 등 경험 요소를 더하고, 이커머스는 폭넓은 상품군과 할인 혜택을 기반으로 탐색·구매 편의성을 강화했다. 편의점은 실용적인 먹거리부터 이색 상품까지 품목을 확대하며 명절 선물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올해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에서 한우와 과일, 수산물 등 전통 상품의 고급화를 넘어 희소 식재료와 예술·여행·케이터링을 결합한 상품을 확대했다. 받는 사람의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가



신세계백화점 추석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모델들의 모습.

/신세계

격과 품질뿐 아니라 선물을 받은 뒤의 경험까지 차별화 요소로 삼고 있다. 본판매 기간은 롯데·신세계는 23일까지, 현대백화점은 24일까지다.

롯데백화점은 축산과 청과, 수산, 그로서리 상품을 ‘초하귀’, ‘조간편’, ‘조신선’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트 품목 수를 지난해보다 약 20% 늘렸다. 전문 카바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 이베리코 하몽을 직접 손질하고 케이터링까지 제공하는 출장 서비스도 도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자체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 ‘5-STAR’와 ‘신세계 암소 한우’, 산지 발굴 브랜드 ‘셀렉트팜’을 중심으로 전통 선물세트의 품질 차별화에 나섰다.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에서는 한과와 송편 등 전통 식문화를 재해석한 상품을, ‘로컬이신세계’에서는 백자 달항아리와 나전 공예 등 지역 장인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정육·수산·청과·주류·라이프스타일 등 약 1500종의 선물 상품을

판매한다. 한우 세트는 지난해보다 10% 늘린 12만 세트를 준비했으며 소가구 등가 등을 반영해 소포장 상품을 강화했다. 동물복지 유기농 한우와 제주 흑한우 등을 선보이고, 청과에서는 고당도 복숭아를 새로 내놓는 한편 혼합 과일 세트 물량을 30% 이상 확대했다.

백화점이 상품의 희소성과 경험을 통해 선물의 ‘격’을 세분화한다면 이커머스는 가격 경쟁력과 탐색 편의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쿠팡과 G마켓, 롯데온 등은 대규모 상품군을 기반으로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용도와 예산에 따라 상품을 빠르게 고를 수 있도록 큐레이션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은 오는 25일까지 ‘추석 선물 본판매’를 진행하고 홍삼과 가공식품, 차, 견과류 등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27일까지는 ‘식품 추석맞이 할인전’을 열어 명절 음식 준비용 식재료와 연휴 간식, 건강식품 등을 함께 선보인다. 용도별 테마관을 운영해 선물 구매와 명절 장보기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수요를 겨냥했다.

G마켓은 오는 22일까지 ‘2026 한가위 빅세일’을 열고 약 2000개의 특가딜 상품을 선보인다. 직전 설 명절 행사보다 특가 상품 수를 약 3배 늘리고 생필품과 주방용품, 디지털·가전, 식품, 선물세트 등으로

할인 범위를 넓혔다. 행사 기간 라이브방송과 쇼츠딜을 약 1000회 편성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피해 농어촌 판매지를 위한 ‘뫓난이 농수산물 특가’도 운영한다.

롯데온은 오는 20일까지 ‘온마음 추석’ 행사를 진행한다. MD 추천 상품과 함께 프리미엄, 신선식품, 건강, 실속형 등으로 테마를 나눠 한우와 굴비, 과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안한다. 받는 사람과 예산, 선물 목적에 따른 큐레이션을 강화하고 패션·리빙·뷰티·디지털가전 등으로 행사 범위를 확대했다.

편의점은 이색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틈새 명절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GS25는 휴머노이드·바둑 로봇과 AI로봇 키링, 스마트워치, 음식물처리기 등 생활형 기기를 선보이고 금은 메달 등 골드·실버 상품도 확대했다. 와인·위스키·사케와 함께 모듬전, 만두, 떡갈비 등 실속형 먹거리도 구성했다.

CU는 추석 선물세트를 710여종으로 늘리고 포켓몬 상품과 캠핑·골프용품, 안마의자, 로봇 등으로 품목을 넓혔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마트 반려견 로봇, AI 바둑 로봇 등 이색 상품도 추석 카탈로그에 포함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홈스파·지역 캐릭터로 뷰티 공략

헤어·핸드팩 검색량 70% 가까이 증가
흡착·온열팩 등 맞춤형 관리 수요 확산
지역 특색 입힌 캐릭터 협업도 인기

집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즐길 수 있는 홈스파와 지역 특색을 담은 캐릭터가 올 가을 국내 뷰티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9월 올영세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위별로 세분화한 홈스파 제품과 한정판 협업 상품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스킨케어의 기본으로 여겨지던 ‘팩’은 전신을 관리하는 맞춤형 뷰티로 진화했다. 과거 얼굴 보습에 치중됐던 팩이 머리부터 손끝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는 분석이다. 9월 올영세일 기간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헤어팩과 핸드팩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69% 급증했다.

얼굴 팩에 대한 수요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모공 속 피지를 밀착 제거하는 ‘흡착팩’ 검색량이 5배나 치솟았다. 열감으로 노폐물을 녹이는 ‘온열팩’ 검색량은 2배



최근 CJ올리브영 명동거리점에서도 ‘9월 올영세일’이 열렸다.

/CJ올리브영

이상 늘었다. 집에서 스파 수준의 특수 관리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한국 지역 감성도 이색적인 뷰티 소비를 견인했다. 9월 올영세일 시작과 함께 공개한 ‘산리오캐릭터즈’ 캠페인이 소비자 소장 욕구를 자극했다. 전국 12개 지역 색채에 헬로키티 디자인을 더했다. 특히 충남 공주 특산물인 밤에서 영감을 받은 ‘정남미명과 공주 밤빵’ 등은 행사 초반부터 구매 문의가 쇄도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국콜마, 파리스 K-뷰티 기술력 알렸다

국내 뷰티기업 유일 공식 초청 참가

최신유행과 세계적인 패션의 중심지 파리에 K뷰티가 경쟁력을 입증했다. 패션과 뷰티의 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로 입지를 다진다. 한국콜마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리미에르 비종 파리’에 국내 뷰티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글로벌 뷰티를 선도하는 가

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섬유 소재 전시회다. 전 세계 900여 개 기업이 모여 원사, 원단, 가죽, 디자인 등 8개 전문관을 꾸민다. 올해는 처음으로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약 45명 규모의 ‘코스메틱 빌리지’도 운영됐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조 기술력과 함께 색조 개발 역량까지 적극 소개했다. 2027~2028년 가을·겨울 트렌드를 반영해 27가지 핵심 색상을 선보였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얼굴 입체감 살리는 ‘마데카 크림’

보르피린 5%·레티노이드 성분 배합

동국제약이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코어 볼류밍’ (사진)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얼굴 전체 입체감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이마, 눈 밑, 코어 중앙부, 팔자, 옆볼 등 핵심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 처짐과 주름을 관리할 수 있다.

프랑스 원료 기업 세더마가 개발한 볼륨 관련 국제 특허 원료 ‘보르피린’ 5% 성분을 처방했다. 또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4종



의 레티노이드 성분 등을 배합했다. 실타래처럼 쫄쫄하게 늘어나는 고탄성 제형으로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피부에 빈틈없이 밀착되는 사용감을 갖췄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피부를 탄탄하게 끌어올려 안면 전체에서 리프팅 효과를 전달할 것”이라며 “동안 피부를 경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고령층 독감백신 2·3상 승인

65세 이상 면역원성·안전성 평가

GC녹십자는 고면역원성 독감백신 후보물질 ‘GC3114B’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서(IND)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 2/3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활성대조군과의 직접 비교를 통해 GC3114B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회사는 올 하반기 임상 2상 첫 환자 투약이 개시될 예정이며, 임상 3상부터는 다국가 임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GC3114B는 일반적인 표준용량 독감백신보다 더 많은 항원을 포함해 고령층에서 보다 강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고령층은 노화에 따른 면역기능 저하로 백신 접종 후 충분한 면역반응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면역원성 독감백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

터(CDC) 산하 예방접종지문위원회(ACIP)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고면역원성 백신을 표준용량 백신보다 우선적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차별화된 독감 예방 옵션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질병관리청은 고면역원성 독감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GC녹십자는 이에 발맞춰 NIP 시장에 진입해 현재 수입 백신에 의존하고 있는 고면역원성 독감백신의 자급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진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면역 특성을 고려한 독감 예방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자사의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고면역원성 독감백신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26FW 모델 고윤정 발탁

돌고래유괴단과 새 시즌 캠페인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이 독창적인 기획과 대세 스타들을 앞세워, 올 가을·겨울 시즌 새로운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녀야 할 핑크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이 26FW 시즌을 맞아 고윤정을 새로운 모델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도 참여한다. 돌고래유괴단은 일상적인 장면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출해 26FW 시즌의 콘셉트를 보여줄 계획이다. 고윤정과 함께 콘텐츠에 등장할 또 다른 모델도 예고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은 최근 주목받는 남자 배우가 합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이름은 추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월비플레이

부천FC 팝업스토어 운영

일상복·DIY 상품으로 팬 점점 확대

월비플레이가 유니폼·응원용품에 머물던 팬 상품을 일상복 영역까지 넓히고 있다. 형지엘리트는 월비플레이가 오는 10일까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부천FC1995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팝업에서는 월비플레이가 기획·제작한 프로축구 K리그1 부천FC1995의 단독 상품을 판매한다. 응원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 아이템들도 마련했다. 베이스볼 저지와 레이싱 재킷 등 스포츠 종목에서 영감을 얻은 일상복과 축구 팬들을 겨냥한 라이프스타일 상품들로 구성했다. DIY 서비스로 팬 접점도 넓힌다. 방문객들은 커스텀 패치를 직접 선택해 원하는 대로 상품을 꾸밀 수 있다.

/김수정 기자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120th
1906-2026
삼육대학교 120주년

www.syu.ac.kr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시대는 변해도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1906년 개교 이래 120년의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삼육대학교는 사람을 깨우고 세상을 밝혀왔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원서접수일 : 2026.9.7.(월) 10:00 ~ 9.11.(금) 18:00
원서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입학처 문의 : 02-3399-3377~9
세부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ipsi.sy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소진공·소공연, 동네슈퍼 착한계란 공급

하나금융은 지난 4일 서울 명동사옥에서 소진공·소공연과 '동네슈퍼 착한계란' 공급을 통한 물가안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 권혁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하나금융그룹



유한양행, '자원순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유한양행이 지난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유공 단체로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유한양행 최용 팀장, 이상호 상무(왼쪽 첫번째, 두번째)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양행



한화에어로, '히어로즈 아카데미 캠프' 마무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보훈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경남 거제와 창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히어로즈 아카데미 캠프'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생과 가족 등 47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주제로 진로 탐색 등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보, 전북 미래산업 대도약 위한 금융지원 나서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4일 전북 전주 농협은행 전북지역 본부에서 '전북 미래산업 대도약을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 2번째부터) 기보 김태주 호남지역본부장, 농협은행 장길환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부음 ▲서정화 씨 별세, 이재철(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본부장)씨 모친상=6일, 보람여주장례식장 1층 특실, 발인 8일. 031-885-1919. ▲김희태(전 국무총리실 전문위원)씨 별세, 김준호(전 대한광업진흥공사 탐사부장)·김군호(전 에프앤가이드 사장)·김은숙·김은경·김은국·김은성 씨 부친상, =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6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8일. 02-2258-5940. ▲박정부씨 별세, 박성근·박민정·박현정(세계일보 편집부 미술팀)씨 부친상=6일 오전 4시,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발인 8일. 02-2227-7500. ▲이기봉(전 연기군수)씨 별세, 권영봉(전 세종우리신협 상임이사)씨 남편상, 이강혁(사업)·이강욱(비즈워치 경영기획실장)·이광원(사업)씨 부친상=6일 오전 8시 50분, 세종연서농협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8일. 044-866-4444.

이장규 대표 “AI 분야 등 韓-베트남 동반성장 길 열어야”

〈메트로경제〉

제3회 국제금융협력 포럼

금융·자본시장 등 미래 먹거리 탐색
양국 교류 확대 필요성 공감대 형성

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메트로미디어 주최 '2026 국제금융협력 포럼'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 감사와 리스관리 담당, 현지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 및 자본시장, 제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베트남 양국 협력 방안을 찾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다.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베트남 경제는 그 어느 곳보다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K-테크'·'K-컬처'와 젊고 역동적인 베트남의 강점이 결합한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은 장시간 외세를 겪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나, 분단의 아픔과 동족끼리 전쟁의 고통을 겪은 것이나 다시 우뚝 일어난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닮았다”면서 “이번 포럼이 금융·제조·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동반성장의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면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재경관은 축사를 통해 “베트남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40개(54개 점포) 한국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는 곳”이라며 “이번 포럼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지난 3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2026 국제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조성준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서영덕 신한카드 감사부장, 이순우 메트로경제 언론윤리실천위원장, 조성우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장, 이재면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재경관, 법체처 박광균 서기관, 이장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대표, 우리베트남은행 배태인 행장, 유영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스타트업센터 하노이 센터장, 이용만 저축은행중앙회 감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트로경제

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가는 뜻깊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시장은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자 미래 경쟁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 파트너 베트남은, 2024년 말 정치국 제57호 결의안 등 개혁정책을 통해 과학기술과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 돌파구로 선언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0%로 높이고, 전체 기업의 40% 이상이 혁신 활동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24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GDP의 약 18.3%를 차지했고, 전자상거래 시장은 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5G 상용화와 온라인 공공서비스 확대도 본격화하고 있

다. 2025년 세계식량재산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에서 베트남은 139개국 중 44위, 중하위소득그룹 중 2위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양국이 함께 만드는 혁신' 관계로 진화한다는 구상이다.

조성우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소장은 '베트남 금융산업의 특징 및 최근 동향'이란 주제 강연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다”면서 “'K-금융' DNA를 현지에 심는다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영토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영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스타트업센터 하노이 센터장은 “베트남 경제는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다. 중국의 사업 환경 악화 때문에 업체들이 베트남에 쇄도하고 있고, 동남아 다른 지역과 생산성이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유연한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한국보다 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 금융협력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과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7년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민간 협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논의했다. 또한 관광산업, 문화 콘텐츠, 국제 스포츠 이벤트, 기업 투자 및 사업개발 분야에서의 기회와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유통업계, 명절 앞두고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중소 협력사 유동성 확보 지원

롯데·신세계·현대백 등 3조 이상

추석 명절을 앞두고 롯데와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명절을 전후해 임금과 상여금,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1만 2000여 개 파트너사에 납품 대금 9495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건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홈쇼핑 등 27개 계열사가 참여해 당초 지급일보다 평균 8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롯데는 2013년부터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평상시에는 약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파트너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 계열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대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세계그룹도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SSG닷컴 등 3개사를 통해 중소기업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들 3개사는 지급 시기를 최대 12일 앞당긴 조기 지급분과 기존 거래 조건에 따른 정기 지급분을 합쳐 총 1조9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1만여 개 중소기업 협력사에 결제대금 2738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9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1일 지급한다. 대상 협력사는 지난해 추석 당시 약 9000곳보다 1000여 곳 늘었다.

유통업계가 명절을 앞두고 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상여금과 원자재 대금 등 비용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유통그룹들은 조기 대금 지급과 금융 지원 제도를 병행하며 협력사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SK·울산상의, 11일 ‘울산포럼’ 개최

‘제조업 AX·일상 속 AI’ 세션 진행

SK와 울산상공회의소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일상 속 AI 활용을 중심으로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SK와 울산상공회의소는 오는 1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Leading AX, Smart Life 울산’을 주제로 ‘2026 울산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울산포럼은 2022년 SK이노베이션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의

모태인 울산의 미래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인 SK그룹 회장의 제안에 따라 출범해 지역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협력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SK와 울산상의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울산시, 울산시의회,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과학대학교 등이 후원한다. 김상욱 울산시장과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SK 구성원과 기업·학계·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포럼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다루는 ‘Physical(피지컬) AI Wave, 제조 AX 대전환’과 일상 속 AI 활용을 살펴보는 ‘AI for Everyone, Smart Local 울산(모두를 위한 AI, 스마트한 지역 울산)’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AI 기반 사회혁신 기업들도 패널로 참여해 공공·생활 분야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AX 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울산포럼과 연계한 ‘WAVE 2026(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도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SK그룹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통해 축적한 AI 역량이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과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서 선보인 (좌)한화의 불꽃.

/한화

한화그룹

서울세계불꽃축제 성료 시민 100만명 현장 찾아

한화그룹이 130억원을 투입한 서울세계불꽃축제에 100만여명의 시민이 몰렸다.

한화는 지난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한화와 함께 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가 안전하게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22회째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 첫 개최 이후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함께 멀리’ 신념에 따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축제를 확대해왔다.

김 회장은 올해 축제를 앞두고 “한화가 하늘 위로 불꽃을 쏘아 올리는 이유는 하늘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에 그 행복을 전하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안전한 축제 운영도 당부했다.

한화는 올해도 한화TV 등을 통해 축제를 생중계했다. 생중계 조회 수는 268만회,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26만명을 기록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단발적 욕설은 모욕죄 아니다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언어적 모욕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환경이 확산되면서 모욕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최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한 행위를 두고, “단순히 불쾌하거나 화가 난 수준의 표현일 뿐이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형법상 ‘모욕’의 의미를 다시금 엄격하게 정리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적으로 한다. 여기서 모욕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끼는 표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은 모욕의 성립 여부를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엄격히 따진다.



따능시에 의해 생성된 모욕죄 관련 이미지.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현의 전제 내용과 맥락, 발언이 나온 경위, 당사자 관계, 말하는 방식, 당시 상황,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표출한 말, 일시적 충동에 나온 욕설, 관용적·단발적 표현은 때로 민사상 책임이나 비난은 가능하더라도 형사상 모욕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형사처벌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고, 그 표현이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 살피는 데 신중을 기한다.

이 사건은 춘천의 한 병원 앞에서 병원 측의 법령 위반과 조세포탈 의혹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던 피해자와 병원 총괄이사인 피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

가 “야 야 야 야 야”라며 반말로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대응했고, 당시 주변에는 행인들이 있었다. 검찰은 이를 공연히 모욕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고,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이 었갈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발언이 한 번의 순간적 충동 속에서 나온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 정당한 대립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욕설이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욕설을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차별적 혐오 표현이 아니고, 순간적 화를 내며 나온 단발적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 말’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대화과정에서 말이 주는 감정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 그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심하게 허물어뜨리거나 혐오스러운 경멸의 표현으로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할 정도일 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욕설과 같은 거친 표현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국가형벌권이 아닌 사회적 통제와 민사적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존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전광시(市)·충대시·경부시



기지수첩

김연세
(정책사회부)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통합특별시 샌프란시스코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보령시. 경남부산울산통합특별시 창원시. 경북대구통합특별시 구미시. 물론 이 중 LA(군 또는 시)는 대전·부산·대구와 달리 주에 속해 있다. 주 정부청사 소재지도 아니다. 아췌든가 정해서 빚대 봤는데 모두 어색하다. 다음은 실제 행정구역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시 밑에 또 시. 역시 부자연스럽다. 국제우편물에도 시티(city)가 2회 들어가야 한다. 해외에 같은 사례가 있나 싶다. 대런던 내 시티오브 런던(인구 1만 자치구 수준)과 뉴욕주 내 뉴욕시, 도쿄도(都) 내 23개 구 등은 경우가 다

르다.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두어 달 전 돌연 탄생했다. 특정 대도시를 한 도에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도 당국의 권한이라지만 명칭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고민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까. 서둘러야만 하는 사연이라도 있었을까. ‘시’를 꼭 붙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광주전남특별자치도’ 내 광주‘시’ 등으로 하면 전라남도 광주시로의 회귀로 비칠 수 있어서였을까. 광주는 1986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도에서 분리됐다. 이후 광역시라는 명칭 변경을 거친 뒤 전남과 다시 합쳐진 것. 일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광주시는 없나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아우를 지역명이 없네요. 지명도 없는데 미래세대한테 5·18 광주를 어찌 설명할지” 등 꾸념 섞인 소감도 올라와 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위행정구

역 관련한 후속 작업을 벌이는 중인지도 모른다. 이른바 마창진 합병에 따른 손질과 비슷할 수 있다. 광양과 나주·목포·순천·여수시가 창원시 아래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와 같은 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민 반발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원시’ 통합부터 서두른 것일까. 하나 흠미로운 대목이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종전의 전남 거주민 평균연령은 올해 6월 말 기준 49.9세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또 전국 최초로 ‘평균 쉰 살이 사는 도’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7월 1일부 병합 덕에 이를 면했다. 광주는 6월 전국평균(46.1세) 아래인 44.7세였다. 이후 8월 전남광주통합 평균나는 47.7세다. 이에 전국 최고령 지역은 경북(49.7세)으로 바뀌었다. 속도 낸 게 이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오비타락이라고 본다.

/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7일 (음 7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입니다. 60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72년생 부귀공명을 누리게 됩니다. 84년생 불어 봐야 승산 없고 이겨 봐야 덕이 없습니다.



소

49년생 노력이 빛을 보고 성공하게 됩니다. 61년생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좋아집니다. 73년생 거래나 소송은 미루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85년생 모든 일이 잘 이뤄지니 기쁜 하루입니다.



로랑어

50년생 피하기 어려운 일이니 의연하게 받아들이세요. 62년생 미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4년생 깊은 산중에 홀로 있는 격이니 외롭습니다. 86년생 결과가 좋으니 자신 있게 추진하세요.



도끼

51년생 흔들리지 말고 초기일만이 필요합니다. 63년생 장기적인 관망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점진적으로 도약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노력한 만큼 결실도 따라옵니다.



조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 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뱀

53년생 음식과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65년생 신뢰를 지켜야 결과가 좋습니다. 77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이득을 봅니다. 89년생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말

54년생 동업자를 만나 일이 순조롭습니다. 66년생 부동산이나 금전문제 주의하세요. 78년생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90년생 순간적인 기지로 어려움을 쉽게 벗어납니다.



양

5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는 게 이득입니다. 79년생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91년생 소신 있게 추진하면 끝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뱌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닭

57년생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바라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길하니 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운도 환하고 마음도 환합니다.



개

58년생 도움을 받아 좋은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마음에 두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94년생 때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빠른 결정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1년생 많은 변화 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83년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95년생 일보다는 마음 편히 쉬는 게 좋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승자와 패자

인생의 진정한 승자와 패자는 무엇일까? 사회적 성공과 명예, 재벌과 같은 큰 부자가 승자일까? 인류의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이들이 인생의 승자일까? 그렇다면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패자인 것일까? 얼마 전 TV에서 남극 탐험의 승자로 기록된 아문센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운명 예측이나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의 가장 북쪽 극점을 북극, 가장 남쪽 극점을 우리는 남극이라 부른다. 미지의 남극점 원정을 최초로 도달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다. 이 남극점 원정은 아문센과 다른 4명의 대원이 1911년 12월 14일에 성공하였다. 역시 남극을 정복하려 떠났던 로버트 펄킨 스콧이 이끄는 영국 원정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아문센 일행이 자신들보다 약 한 달전에 먼저 남극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아문센이 남긴 빈 천막과 노르웨이 국기, 그리고 천막 안에 있던 메모지를 본 순간 스콧과 그 일행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작 바극은 아문센 원정대는 무사히 기지로 돌아갔지만, 스콧과 나머지 4명의 대원은 귀환중에 모진 추위와 식량부족으로 모두 사망했다. 후대 사람들은 아문센과 스콧의 성공과 실패를 견주어 보면서 그 요인을 분석한다. 아문센의 성공은 준비성에서 훨씬 영리하고 효율적이었는데, 경로를 따라 식량과 연료를 미리 비축했고 귀환길에 표식을 남겨 귀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이동수단으로서 개 썰매를 핵심 수단으로 선택했고, 극한 환경에 맞춘 장비와 복장 운용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다. 1910년부터 1912년까지의 활영 원본 필름을 최초로 남겨 매우 중요한 영상기록으로서 세계기록유산이 된다. 또췌록 아문센은 남극 탐험에서는 명백한 승자다. 그러나 5주 정도 시간상으로 늦었다 해서 스콧이 패자인 것일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9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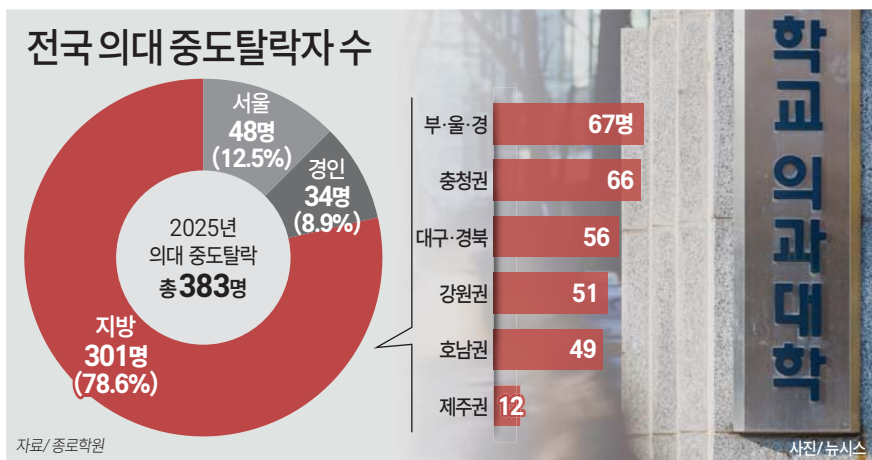
“수도권 의대 재도전 할래요” 의대 중도탈락 80% ‘지방권’

전국 의과대학 중도탈락 383명
정원확대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수도권 의대 재진입 시도 원인
“지역의사제 도입시 이동 증가”

지방 의과대학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이 의대 정원 확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계는 지역 인재전형 확대에 따라 지방의대 진학자가 늘면서 수도권 의대 등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6일 종로학원은 대학알리미가 지난달 29일 공시한 대학별 중도 탈락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39개 의과대학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 383명 가운데 301명(78.6%)이 지방권 의대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타 권역에서는 서울권 48명(12.5%), 경인권 34명(8.9%)에 그쳤다. 지방권 중도 탈락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전인 2022년(138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종로학원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대로 재도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고 분석했다.

지방권 안에서도 편차가 컸다. ▲부산·울산·경남 67명 ▲충청권 66명 ▲대구·경북 56명 ▲강원권 51명 ▲호남권 49명 ▲제주권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울경과 충청권, 대구경북권은 2022년 각각 27명, 28명, 1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광대 18명 ▲경상국립대·단국대(천안) 각 17명 ▲한양대 16명이 뒤를 이었다. 중도탈락자 상위 5개 대학 중 4곳이 지방권 의대였다. 반면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건양대는 각 2명으

로 전국에서 중도탈락자가 가장 적었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 중도탈락자 다수가 수도권 의대로의 재진입을 시도한 점을 원인으로 내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권 상위권 학생들의 지방 의대 진학이 늘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의대 재진입에 나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내년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현재까지의 추세를 고려했을 때, 상위권 의대로의 이동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구도”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서울 학생 31명, 11개 언어로 꿈 말한다

서울시교육청 ‘이중언어 페스티벌’
창작웹툰 전시, 문화다양성 체험도

서울 초·중·고 학생 31명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 등 두 개 언어로 자신의 경험과 꿈, 가족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일 서울시교육청 1층 시청각실과 로비에서 ‘이중언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무대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초·중·고 학생 18명과 중·고등학생 13명 등 총 31명이 오른다. 학생들은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일본어를 비롯해 캄보디아어·파슈토어·타밀어·태국어·우르두어·타갈로그어 등 총 11개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한다.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두 개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중언어 말하기’를 중심으로 창작 웹툰 전시와 문화다양성 체험 등을 함께 진행한다.

이중언어 말하기는 초·중·고·고등부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들은 취미·진로·학교 생활 등 자신의 이야기와 좋아하는 한국 문화,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를 배운 경

험, 좋아하는 사람 등을 주제로 먼저 한국어로 발표한 뒤 같은 내용을 부모의 모국어로 발표한다.

학생들의 언어·문화적 경험을 작품으로 접할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교육청 1층 로비에서는 참가 학생들의 이중언어 발표 원고와 ‘다름과 존중’,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주제로 제작된 학생 창작 웹툰 수상작 9편을 전시한다.

참여형 문화다양성 체험인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알고리즘’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를 고르고 서로를 연결해 하나의 공동작품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다양성과 관계의 의미를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즉석 기념사진 촬영과 관람 소감·메시지 남기기 등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본선 참가자뿐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학급·동아리 단위로 이중언어 말하기 발표를 관람하고 작품 전시와 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연구팀, 빛으로 암 진단 기술 개발

화학과 주재범 교수 연구팀
항체 대신 MIP 적용, EV 선별

중앙대 연구팀이 항체 없이도 암의 흔적을 빛으로 포착해 내는 정밀 진단 기술을 구현했다.

중앙대는 화학과 주재범 교수 연구팀이 액체생검에 활용되는 세포 외 소포체(EV)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정량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중국과 학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중앙대 화학과 Jiadong Chen 박사와 정생이 제1 저자로 참여했다.

EV는 단백질과 유전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혈액이나 소변 등 체액에서 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다. 다만 크기가 작

고 여러 물질과 섞여 있어 특정 EV만 골라내 측정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항체 대신 분자각인고분자(MIP)를 활용해 원하는 EV를 골라 포획하는 방식을 구현했다. 특정 표적의 구조와 화학적 특성을 본떠 만든 MIP가 표적 EV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극소량의 용액 방울로 각인층을 만드는 ‘단일 미세액적 각인’ 방식도 적용했다. 그 결과 기존 방식보다 시약 사용량을 약 285분의 1로 줄였고 제작 시간도 약 6배 단축했다. 반복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도 4% 미만으로 낮췄다.

연구팀은 결합할 때 발생하는 빛의 변화를 측정하는 표면증강라만산란(SERS) 기술도 더했다. 실제 전처리하지 않은 소변 35 μL를 활용해 EV를 정량 분석하고 1 μL당 약 317개 입자 수준까지 검출했다.

/김수정 기자

서울런 ‘5주년’… 누적 대학합격자 2840명

서울런 가입자 9000명→4만4000명
올해 914명 대학 합격… 역대 최대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가입자가 출범 5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서울런 이용자의 대학 합격자는 누적 2840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914명이 대학에 합격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런 가입자는 4만4000여명으로, 출범 첫해인 2021년 9069명의 약 5배로 증가했다. 연도별 가입자는 2022년 1만7640명, 2023년 2만2924명, 2024년 3만1179명, 2025년 3만764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대입 합격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런 진학 조사 결과 대학 합격자는 2023학년도 462명에서 2024학년도 682명, 2025

학년도 782명, 2026학년도 914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누적 합격자는 2840명이다.

서울런 이용자의 학습역량과 학습태도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리서치가 서울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평가 조사에서 학습역량은 2022년 75점에서 2025년 83점으로, 학습태도는 같은 기간 75점에서 85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고등학생 이용자의 평균 내신은 서울런 이용 전보다 0.36등급 올랐다.

진학뿐 아니라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늘었다. 올해 초 실시한 진로·진학 조사에서 취업에 성공했다고 답한 이용자는 75명으로 전년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에 합격하거나 취업한 응답자의 95%는 서울런을 주변에 추천하겠다고 답

했다. 이번 조사는 2007년생 이상 서울런 회원 19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런 멘토링은 학습 지도와 학습습관 형성, 진로 탐색,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멘티 만족도는 95%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생과 시니어 등 멘토 16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런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했다.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서울런 수혜 가능 인원은 약 12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었다.

서울런 정책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충북과 경기 김포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현진 기자 lhy@

고양시, 초가을 숲에서 가족과 자연 체험

곤충관찰, 보물찾기 등 체험 프로그램

고양시가 초가을을 맞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숲속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고양시는 오는 12일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과 정발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숲에서 만나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속 숲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부모와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에서는 ‘곤충과

만나요’를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족들이 숲길을 걸으며 다양한 곤충을 직접 관찰하고, 숲에서 만난 자연물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등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발산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숲에서 놀자!’를 주제로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 숲속 보물찾기 등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가 마련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메트로 한줄뉴스



▲태풍 사우델 강타한 中…장시성 산사태로 1명 사망·11명 실종
▲아·태 미디어 고위급 포럼 ‘선전 컨센서스’ 발표…“협력으로 신뢰 위기 대응”
/사진 뉴스스

▲핀란드, 2차대전 후 최대 민방위 훈련…러 위협에 대비
▲트럼프 “푸틴, 나토 공격 생각 없어”…‘獨공화사보타주’ 의혹 일축

▲트럼프, 텍사스 상원 선거에 1000만 달러 투입…공화당 수석 총력
▲공교 킨샤사 결혼 파티에서 화재로 22명 사망…건물 복도 좁아 대피 못해



식품·유통업계
맞춤형 미니멀리즘
트렌드 저격
L1

metro®

Life

백화점 회소성
이커머스 가성비
명절선물 세분화
L2



국제물류 30년... “한 건 한 건 끝까지 책임지는 파트너 될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지디로지비스
최 주 연 대표

“항상 메일을 가장 먼저 봅니다. 지금 메일을 보내야 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새벽 5시30분, 최주연 지디로지비스 대표의 하루는 밤사이 미국과 유럽에서 도착한 메일을 확인하는 일로 시작한다. 시차상 지금 답해야 그날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연락부터 챙긴 뒤 집 뒤 작은 산을 걷고, 6명으로 꾸려진 회사를 이끌기 위해 사무실로 향한다.

국제물류 업계에서 30년을 보낸 최 대표에게 새벽은 세계의 움직임을 먼저 살피는 시간이다. 출근한 뒤에는 항만 상황과 선박·항공기 일정, 환율과 국제유가, 해외 파트너가 보내온 메시지를 확인한다. 문제가 생긴 화물이 있으면 직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대체 운송편과 우회 경로를 찾는다.

◆ “내가 해보면 어떨까”...25년 직장인, 대표가 되다

1971년생인 최 대표는 아라한역에서 항공수출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물류업에 첫발을 들였다. 이후 ABX해영해운과 에프피에스코리아, 위너스해운항공 등을 거쳐 항공·해상 수출입과 해외영업, 글로벌 파트너십, 신규사업과 조직 운영 경험을 쌓았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자신의 물류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직 안에서는 회사의 방향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아이디어와 업무 방식을 온전히 펼치기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최 대표는 “내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49세에 시작했으니 조금 늦게 시작한 셈”이라고 말했다.

오랜 고민 끝에 과거 함께 일했던 대표에게 조언을 구했고, 현장 경험을 받고 도전해도 좋다는 격려를 받았다. 최 대표는 25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2020년 2월 4일 지디로지비스를 설립했다.

창업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한 때와 겹쳤다. 각국의 국경 통제와 항공편 감소, 선박 운항 차질로 화물을 실을 공간은 부족해졌고 운임과 일정은 수시로 바뀌었다. 운송비를 먼저 지급해야 하는 국제물류업의 특성상 업력이 짧은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자금 부담도 컸다.

최 대표는 가능한 항공편과 선박 일정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여러 대체 경로를 비교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물 한 건 한 건에 책임 있게 대응한 경험은 새 회사가 고객과 관계를 쌓는 토대가 됐다.

그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결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하고 옳았던 선택이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창업 초기의 위기를 겪



최주연 지디로지비스 대표가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성진 기자 ksi@

물류업계 베테랑... 소규모 회사 이끌어
새벽, 해외 메시지 확인하며 하루 시작
25년 직장생활 후 49세에 홀로서기

코로나 시기, 예측 어려운 상황에도
화물 하나하나 책임지며 신뢰 쌓아
선박명 하나로 추적... 거래로 이어져

감보다 체계적인 일처리로 위기 관리
물류경험 부족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내실있게 성장하는 물류파트너 목표

”



으며 외형적인 성장에 앞서 사람과 신뢰,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 선박명 하나로 한 달 넘게 추적...도움이 거래로

최 대표가 국제물류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던 업체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미국 시애틀에서 태국으로 항할 예정이던 화물을 실은 선박에 불이 났는데, 기존 물류회사로부터 정확한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최 대표가 담당한 화물은 아니었지만 업체는 최종 납품처에 진행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최 대표에게 주어진 정보는 선박명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제가 가진 단서는 선박명밖에 없었다. 해외 파트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한 달 넘게 매일 터미널 사이트에 들어가 배가 출항했는지, 상황이 바뀌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선박 화재가 발생하면 수리를 마친 뒤에도 현지 관계기관의 안전 승인을 받아야 다시 운항할 수 있다. 최 대표의 기억으로는 화재 수습과 승인 절차에 한두 달이량이 걸렸다. 그는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한 내용을 업체에 꾸준히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믿음은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다. 기존 화물의 납기 차질을 막기 위한 대체 물량 일부를 최 대표가 긴급 항공 운송으로 맡게 됐다.

미국에는 대체 재고가 없어 벨기에에서 물량을 확보해 태국 방콕으로 보내야 했다. 목적지의 현지 연휴까지 겹치면서 일반적인 운송 경로로는 약속한 날짜를 맞추기 어려웠다.

최 대표는 벨기



지디로지비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

에뿐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을 모두 검토했다. 출발시간과 환적지, 연결편과 방콕 도착시간을 비교한 뒤 물량을 여러 갈래로 나눠 서로 다른 항공편에 실었다. 비용보다 납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었다.

대체 물량은 약속한 기한 안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거래조차 없었던 업체지만 당시 맺은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사례는 회사 이름에 담긴 뜻과도 맞닿아 있다. 지디로지비스(GD LOGIBIS)는 ‘Geo-Dynamic Business Logistics’를 의미한다.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리적 조건부터 운송 경로와 현지 휴일, 항공·선박 일정, 날씨와 돌발 상황을 함께 살펴 고객에게 맞는 대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 6명 소수정예가 세운 원칙...“감에 의존하지 않는다”

현재 지디로지비스는 최 대표를 포함해 총 6명이 해상·항공운송과 삼국 간 운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의사결정이 빠르고 주요 고객 상담이나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최 대표가 직접 대응한다.

작은 조직일수록 업무가 한 사람의 경험이나 감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 대표의 원칙이다. 지디로지비스는 2025년 화물 운송주선업 부문 중소기업 A등급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받았다.

최 대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에 의존하는 일처리를 완전히 없애야 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거래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지디로지비스는 KOTRA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물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고 있다. 최 대표가 그리는 회사의 미래는 단순히 운송량과 매출이 큰 기업에 머물지 않는다.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고, 화물 한 건도 끝까지 책임지는 국제물류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어려운 물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회사로 성장하고 싶다”며 “단순히 물동량과 매출을 키우기보다 한 건의 화물도 끝까지 책임지는 내실 있는 물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정윤진 U-18 야구대표팀 감독 “아시아선수권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월드 클라이밍 9차 대회 리드 동메달
/사진 뉴시스

▲손흥민 8경기 만에 골 맛...LAFC, 솔트레이크 2-2 비겨
▲‘3경기 연속 선발 제외’ 오타니, 부상자명단 오르나...다저스 고민

▲한국 여자농구, 월드컵 2차전서 프랑스에 69-95 완패...1승 1패
▲김민재 벤치·황희찬 제외...독일 분데스리가 ‘코리안더비’ 무산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새로운 챔피언십,
누가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KB금융 골든라이프 챔피언십

GOLDEN LIFE CHAMPIONSHIP

2026.9.10 (목) - 13 (일)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

주최 | KB금융그룹
주관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방송 | SBS Golf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골프의 역사를 만들어 온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
2026년 'KB금융 골든라이프 챔피언십'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KB금융그룹